朝鮮日報 夕刊 二日(金)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伊決議試案拒否로 聯盟理事會延期

佛首相、伊首相에게長距離電話로써 反對意見撤回를要請

【電通쥬네브一日發】一日午後五時開會豫定이엿든 聯盟理事會는 伊太利側이 英佛代表提案에 依한決議案 受諾을拒否하엿기때문에 二日까지 延期되엿다

【쥬네브一日發聯合】確聞하면伊太利政府는 이든無任所相과 라발首相間에 意見一致된 決議案에 對하야 斷然不滿한빗치 잇슴으로 라발首相은 一日朝뭇솔리니首相과 長距離電話로 直接反對意見撤回를 要請하엿다 그結果는 아즉不明하나 何如든理事會를 一日延期하고 다시伊太利側과 折衝하야 何等協調에 到達하려하는것이라고 觀測된다

決議試案內容

【電通쥬네브一日發】이든 라발英佛兩代表가 提案한 理事會의決議草案試案은 伊太利에 依하야 拒絶되엿는데 그內容은 左와如하다

一、和協委員會의 事業權限을伊太利가 要求한바와 如히 制限한다 即委員會는 왈왈事件及 이에繼續하야 發生한 諸事件그自身의 解決을 함에그치고 『왈왈』이 에디오피아領인가 아닌가 하는 根本問題를 審議할수업는것으로함

二、英佛伊에四個國은 紛爭全般의平和的解決을圖키爲하야 交涉을開始함 그리고 이四個國會議의開催地는 뭇솔리니伊首相의出席을 可能케하기爲하야 北伊太利의 都市로함

三、和協委員會는 九月一日까지에 왈왈事件及 其他諸事件을解決하고 前記四個國은 九月四日까지에 紛爭全般의完全한解決案을作成한다 그리고 四個國의意見一致가못되는時에는 理事會는 九月四日 會合하야 全問題를 上程하야 審議를開始함

四、伊에兩國은 和平交涉의進行中 武力에訴치안키를 再次誓約함

五、商議結果 如何에 不拘하고 九月四日 理事會를 開會하고 問題의 全面的審議를 行함

會議의期間附와 『에』國參加反對

伊決議受諾拒否要旨

【電通쥬네브一日發】伊太利側의 決議受諾不能回答의 主旨는 大體로 左와如하다

一、에디오피아를 英、佛、伊와同等으로 待遇하야 四個國會議에 參加케한데 承服키困難하고 一九〇六年의 英、佛、伊三國條約에 基한 三國會議라면 贊成함

一、關係國會議를 聯盟의 主催下에開催하는것은反對함

一、會議의規定에 日限을附하는데는反對함

右 反對通告를 接하고 라발佛外相은 伊太利側의 要求를滿足케할 手段을考究하기爲하야 午後四時 十五分 아로이지 代表와 急速 會議를開始하엿다

紛爭處理에對한 英佛決議內容

【쥬네브一日發聯合】三十一日이든無任所相과 라발首相間에 一致된 伊、에 紛爭處理에 關한 決議內容은 大體로左와 如하다

一、聯盟理事會 和協委員會는 伊太利政府와가티 『委員會는 伊太利、에디오피아 國境을確定케할義務가 업다』고解釋함

二、和協委員會 第五委員을任命하야 右和協委員은 一九二八年 伊太利 에디오피아의 友好條約에 依하야 來九月一日까지 決定에 到達함

三、一九〇五年條約의 調印國인 英、佛、伊三國은 商議를開始하야 問題解決를 容易케하는 同時에 에디오피아 政府와 協力하야 伊太利、에디오피아 兩國의 友好的 關係를確保함

四、關係國은 來九月四日 問題商議에 關한 報告書를 作製함

人種鬪爭의阻止와 戰爭手段回避企圖

國際聯盟中心主義의處理徹底와 委任統治規約活用으로紛爭解決

英政府伊에紛爭解決策表明

【電通倫敦一日發】호어英外相은 一日 下院에서 伊、에紛爭解決에 關한 英國政府의 政策全貌를 비로소 明白히 하엿다

一、戰爭全體回避
一、人種鬪爭發生의 阻止
一、國際聯盟中心主義에 依한 國際問題處理方針의 徹底
一、委任統治規約活用에 依한伊에紛爭解決을 率直히 言明하고

이重大紛爭이 아직도 聯盟機構內에서 聯盟規約을適當히 誘導利用하는데 依하야 處理할수잇다 六千萬의 白人과 四億三千萬의 有色人種으로써 構成된 大英帝國에對하야 今回의紛爭은 特히 直接關心事가 안될수업다 白人과 黑人間에 戰爭이 이러나면 그것은 將來 人種間의 和解共存上 避키어려운 重大障害를 齎來할것이다 我等은 모든努力을 다하야 이것을 避하고 戰爭을 阻止치안흐면 안되다 그리고 吾人은 現在의事態緩和를 爲하야 全然새로운一案을 가지고잇다 余는此를即時쥬네브에잇는 英國代表에게 傳達할터인데 同時에 余는 英佛兩國政府가 事態의 沈靜手段을講하고 伊領植民地의 非侵略防止 保障案을 爲始하야 다 여러가지의 考慮를하고잇는것을 告하는光榮을 가지다 即 萬若 聯盟規約第二十二條의 委任統治相續制裁의 規定이 일즉이 獨逸及 土耳其의 領土를 獲得하려고 企圖한戰勝한 聯合國側에對하야 조흔 結果를 齎來하엿다고하면 余는 奴隸制度보담 不適當한制限下에잇는 世界의 엇더한未開國에 對하야도 右와同樣으로 適用치안흐면 안될것으로 思惟한다 英國의本問題에 關한 基礎方針은 意見이 衝突하면 即時 戰爭에 訴한다는 態度를 避함에잇다 政府는此際諸黨派에서 一齊히 支援의 言明을 得하야 各種平和解決方針에 邁進할것을 깃버한다 (寫眞은 호어英外相)

伊强壓政策續行으로 『에』皇帝開戰決意

戰術上으로斷水策着手

【아디스아베바一日發聯合】에디오피아國皇帝하일레세라시에一世는 뭇소리니首相의 依然한 强壓政策에 平和解決을 斷念하고 戰端을開하기로 決意하고 陸相무르케다氏外人顧問等과 協議하야 鞏固히 作戰을 練磨하고잇다고傳한다 確聞하면 가장有力한戰術은 斷水策으로決定하야 白耳義人顧問指導下에 着着히準備하고잇다 (寫眞은 에皇帝)

全國酋長을召集 戰時對策討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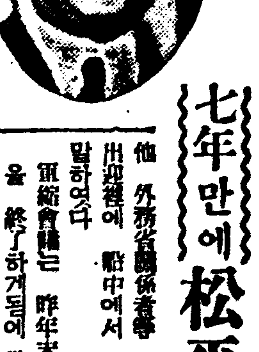
【아디스아베바一日發聯合】皇帝하일레세라시에一世는 雨期가 끗나기前에 三十一日 國都아디스아베바에 全國酋長會議를 招集하고 全國各地로부터 集合한 數百의 酋長群은 御苑內에 設備한 天幕下에서 前後 二時間에 亘하야 戰時對策을 討議하엿다 會議內容은 絶對 秘密에 附하나 皇帝는 聯盟理事會에잇서 和協折衝에 만흔 期待를 가지안코 早晚 伊太利軍이 國境線을 突破하고 侵略行動을 取한것은 避하기困難하다고 思하고 各地方의 實權者인 酋長과 協議하고 重大國策을 決定한것이라고 解釋되다 特히 國境地方의 緊張된 情勢를 指摘하고 뭇솔리니首相이 에디오피아帝國에 對하야 無禮한 軍事行動을 行한데 對하야 將兵의 激昂이 極度에 達하게되어 不測의措擧를 取할는지도 알수업다고 報告하고皇帝의 重大決意를 進言한것이라고 解釋되다 會議는 一日에 終了되엿는데 國內의 空氣는 더욱 緊張을 呈하엿다

婦人大會政府激勵

【電通아디스아베바一日發】當地婦人協會員五十名은 一日『에세프베헬』婦人會館에서 大會를開始하고 伊太利의 對에抗爭에 對하야 婦人代表로부터 政府激勵演說을行한다음 政府에 對한軍費捐募集을開始한바 벌서 五萬二千六百五十파렐에達하엿다

英國一般輿論은 對日友好의維持

七年만에松平大使歸國談



【電通橫濱電話】카나다를 經由하야 賜暇歸國한 駐英大使 松平恒雄氏는 信子夫人、令孃 正子、令息 次郎及 令息 一郎氏와 婚約中인 德川駐土大使 令孃 豊子(二)加藤駐米大使館 三等書記官等을 帶同하고 二日 早朝 橫濱에 入港한 平安丸으로 七年만에 歸國하엿다、秩父宮家御使 前田事務官을 爲始하야 松岡洋右氏 軍縮代表 山本五十六中將 林權助男 德川義親侯 其他 外務省關係者等 五十餘名의 出迎裡에 船中에서 左와 如히 말하엿다

軍縮會議는 昨年末 豫備會商을 終了하게되에 當하야 適當한 時期에 英國政府가 關係國을 招請하기로 되엿다는데 余가倫敦을 出發하기 까지는 年內에 開催될는지 안될는지 豫想할수 업다 英國은 日英獨會談에 成功하고 同交涉의 結果를 기다려 日本에 交涉을 開始하야 그意向을 打診하여가지고 本會議의 開否를 決定하리라고 思推한다 따라 自己로서는 軍縮會議의 將來에 對하여는 何等斷言할수업다

最近 英國一部에서는 英米提携論이 盛傳되는 模樣인데 英國의 一般輿論은 依然歷史的으로日英友好關係를 維持하여 가려는空氣가 濃厚하다 南阿의 스맛츠將軍과 如한人物은 日本을 壓迫키爲하야 英米提携를促進한다고 하고나 볼드윈首相이든無任所相等은 一般的으로英米提携를 促進하고잇다 번비卿의 滿洲視察에 依한 英國財界는 滿洲國에 相當한 期待를가저섯스나 그後 事實上 注文도 期待하는바와 다름으로 悲觀的空氣가잇는듯하다 日英間의 通商問題도 英國이 綿絲布、人絹類의 輸入配定을 實施하엿슴으로 一時는 惡化되엿스나、그後 英國에서도 日本에對하여는 現狀維持로나아가려는空氣가 濃厚하게 되여 日本과 中國에서 喪失한市場을 自國이自由로 할수잇는 他의市場에서 回復하려고 策動하고잇다고 傳하는模樣인데 此際對策에對하여는 倫敦으로부터 松山商務書記官이 近近 歸國하야 外務省과 充分交涉을 逐할 豫定이다 歐洲의一般的 空氣는 에디오피아問題其他로 緊迫되여잇스나 아마 戰爭에 까지는 展開되지안흐리라고豫想한다 (寫眞은 松平大使)

最後的紛爭處理에 理事會介入不同意

戰鬪行爲停止誓約에는妥協을表示

伊首相正式回答到着

【쥬네브一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의 强硬決意로 決議草案에 對한 折衝은 依然 挫折를 招來하야 英佛伊三國代表는 一日夜半에 이르기까지 局面打開에 大大的 折衝을 繼續하고잇다 理事會 決議草案에 對한 뭇솔리니首相의 正式回答은 午後三時지나 伊太利代表部에 到着되여 首席代表 아로이지男은 午後四時 右訓令을 携帶하고 佛國代表部에 라발首相을 訪問하고 뭇솔리니首相의 意向이라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一、伊太利政府는 和協委員會에서 第五委員任命에 反對치안코 또 一九二八年八月 에디오피아政府와의 恒久友好條約을 再確認하야 和協手續의進捗을 示現하는 동안은 戰爭行爲에 訴치 안켓다는 旨를 誓約할用意가잇다

一、但 一九〇六年十二月의英、佛、伊條約에 基한 和協折衝에 에디오피아政府의 參加를 許할것과 和協手續을 國際聯盟의 發議에 基한 形式으로 理事會가 最後的 紛爭處理에 介入하는데는 到底히同意할수업다

그리고 이든無任所相과 會見한 結果 英佛伊三國代表는 午後五時十五分부터 다시 佛國代表部에 參集하야 라발首相의 修正案을 基礎로 前後一時間에 亘하야 鳩首協議를 遂하엿는데 戰鬪行爲停止誓約 及 理事會와 和協折衝과의 『關係』에對하여는 比較的 簡單히 妥協案이 成立되엿스나 에디오피아政府의 參加問題에 對하여는 容易하게意見一致되지 못하야 이든、아로이지兩氏間에 諮抗이 繼續되엿다

松岡氏의總裁起用은 滿鐵改組의前提

最高顧問에는松方氏

【東京電話聯合】滿鐵總裁의 更迭은 二日에 發令되여 松岡洋右氏가 新任總裁로 赴任케 되엿는데 이에 따라 北鐵의 委任經營과 北中方面의 經濟開發提携等 重大懸案을 解決키 爲하야 滿鐵自體의 改造를 强行할 必要가잇슴으로 滿鐵의 職制를 改革하야 滿鐵에 最高顧問制를 設하는 同時에 副總裁를 一名을 增員하야 二名으로하기로 大略 內定하고 그人選에 對하여는 最高顧問에 松方幸次郎氏 副總裁에는 小日山直登 川越對滿事務局次長 前滿鐵理事 十河信二氏等이 推薦되여잇다

赴任은廿日以後

【東京電話聯合】新滿鐵總裁인松岡洋右氏는 二日正式發令을 기다려 곳南駐滿大使와 聯絡을 取하야 諸種의 準備工作에 着手할터인데 前任林總裁의 事務引繼는 林前任總裁가 一次歸滿할 必要가잇서 이로因하야 적어도 一週間을 要하게 될터임으로 這間에 松岡氏는 南駐滿全權大使와 여러가지로 妥協을 遂할터인바 前任林總裁와의 正式事務引繼는 빨리도 十五、六日頃이 될듯하며 結局松岡新總裁의 赴任時期는 二十日後라고觀測되다

怪文書發送한 二將校懲戒免職

【電通東京電話】過日來問題가되고잇든 怪文書를 發送한 陸軍兩將校에 對하야 二日左와如히 懲戒處分이 發表되엿다

陸軍步兵大尉 村中孝次
陸軍一等主計 磯部淺一
免本官(懲戒免官)

右兩將校에 對하야는 追後로 位記勳章剝奪이잇슬터이다

國體明徵案文에 軍部大臣도滿足

政府의聲明書內容主旨決定

五日頃正式으로發表

【東京電話聯合】政府의 國體明徵聲明書內容에 對하여는 二三字句의 修正을 施하야 그主旨를決定하엿다 그리고 右決定案은 政府는 特히 林陸相大角海相의 要望을 容認하야 最初의 國體明徵案文을 거이 全部改正한것으로 一日의 關係閣僚會議結果에 對하여는 軍部側大臣은 完全히 滿足을 表明하고잇다 그리고 政府의 聲明書案文에 對하야 當初軍部의 要望은 『天皇機關說』을 排擊한다고 字句를 明確히 揷記하라고 主張 하엿스나 元來『機關說』이라는 字句그것이갓는 嚴密한 意義는理論上 決定할수업는것임으로 責任잇는 政府의公文書에 漫然히 使用하면 政府는 도리혀 相當히 非難을맛게될 結果를 招來할것임으로 그字句의 使用은中止하기로 되엿다 그러나 聲明書案文의 機關說을 排擊하는것이 主旨라는것은 極히簡明히 感得될것으로 軍部兩相도 이에 滿足하고잇다 右聲明書의 發表時期에 對하여는 軍部는 急히할것을 要求함으로 政府의準備만 整備되면 來週初即 五日頃에 發表케되리라고 觀測되다

그리고 聲明書의 要綱은 如左함

聲明書의要綱

一、日本의 國體는 世界無比의것으로 建國精神이 萬古에動搖되지안는다는것은 何人이나 疑心할 餘地가 업다 그런대 近時憲法解釋에잇서 日本國體本義에 거슬리는 念慮가 抱懷케되것은 遺憾이다

一、現內閣은 일즉이 此點을 깁히 考慮하고 組閣以來 國體明徵의 徹底를 期하야 不穩思想의 芟除에 努力하여왓스나 더욱 前議會終了後 憲法關係著書에 對하야 嚴重檢討를 行하야 不穩하다고 認定하는데 對하여는 發賣頒布禁止及 改版을 行케하엿다 一方 各學校에 對하여는 憲法講座擔當者의 改廢及 國體明徵主旨의 徹底를 圖하야왓다

一、政府로서는 今後 더욱 이點에 注力하야 國體觀念의 明徵 國民精神作興에 銳意努力할것은勿論 特히 國家統治權에 對한 天皇機關說과 如한 것은 國民思想에 對하야 惡影響을줌으로 이러한 學說에 對하여는 剷滅을 期하야 日本國體의本義에비추어 憲法解釋에 조곰이라도 疑念을 품는 學說은 그一掃를 期하야 將來에 對하야 깁히 警戒하려하는바이다

人事·集會

▲吳亨錫氏(本社會計部長)八月一日午後六時半 黃海道白川邑鄕第에서 遭內艱
▲韓泰泉氏(平壤光成普通學校敎員) 本社新築落成人事次來社

六中全會議

九月二十日開會決定

【南京一日發聯合】今日의 中央常務會議에서 九月二十日 六中全會議를 開催하기로 正式決定하엿는데 黨部改造와 政權解決의 空氣가 最近 益益 濃厚하게되여 黨部要人도 漸次 이에 贊意를 表하게된 模樣으로 十一月 五全大會와 國民大會를 거처憲政期移行의 可能性을 增大케하리라고 觀測되다

宇垣總督 農業講習會觀察

宇垣總督은 富永知事의 案內로 二日午後三時三十分 京城府外淸凉里의 京城農業學校에서開會中인 京畿道 夏季敎員講習會(農業科講習)의 狀況視察에 赴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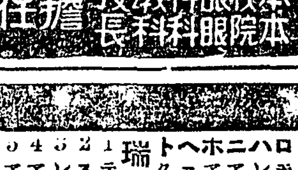
八面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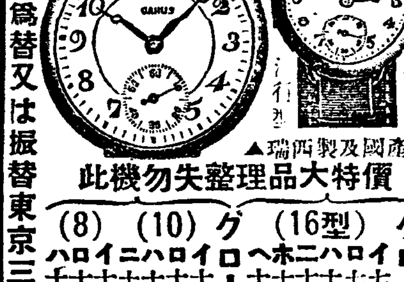
鐘紡과 郡是의 工場에서 絹織을 開始코자 各各施設을整備中。◇織原紬、尙州紬等의 需要가 줄어드는지는 이미오래이니、三十八萬戶의 小農絲業家가 一朝에 失業을 未免하리라 함은 一大問題。◇大資本의 손이 가는곳에 小資本이 자최를 감추고、大企業의 발이 뻐치는곳에 家內企業이 衰亡함은 너무나常識的現狀。◇副業을 奬勵하고 更生을 圖謀하는 朝鮮에잇서서 當局者는 將次 무엇으로써 所謂振興策의 手段을 삼으랴는고。◇心田開發보다는 火田開發이 急하고 農村振興보다는 民衆保護가 尤急하다。

漁具
極上麻絲投網 五分目 二尋 金八圓也
四分目 二尋 金拾圓也
捕鳥網 三間 金參圓也
漁具卸商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局 四三九〇 振替京城 一二、一五六
定價表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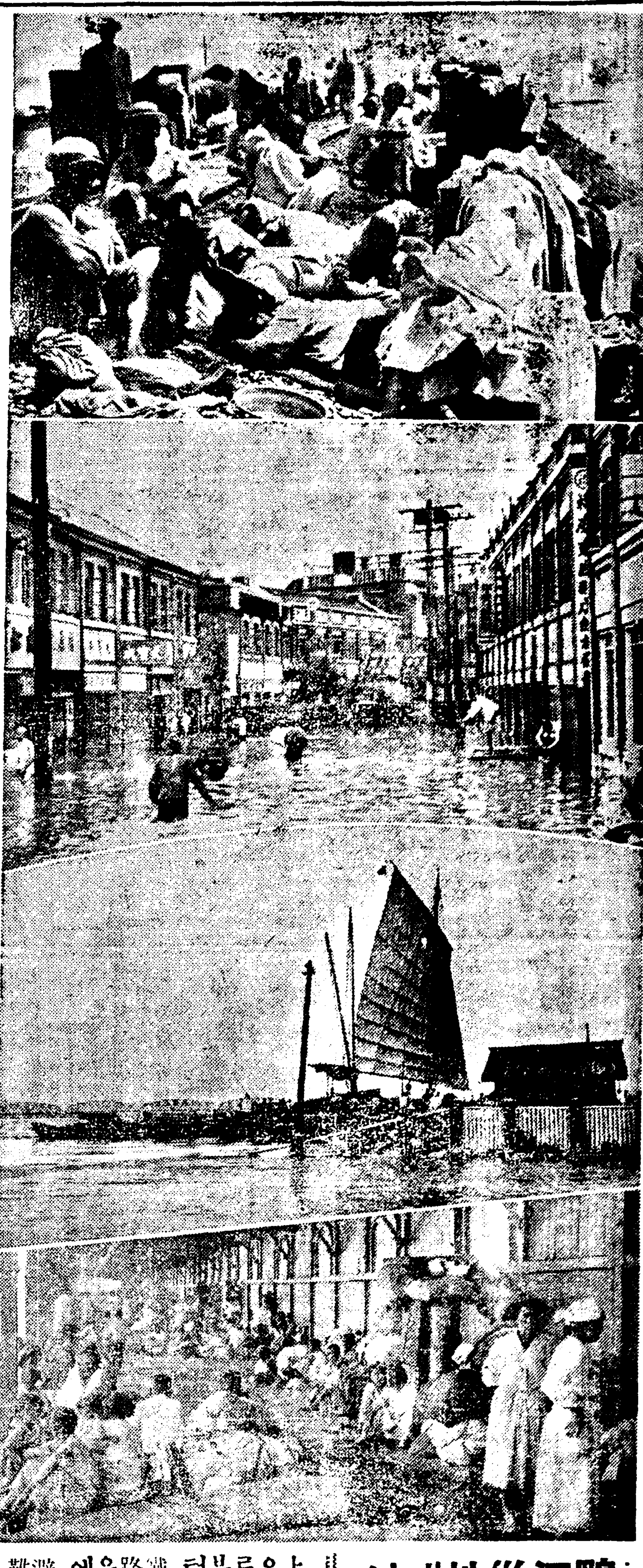
七百圓以上金融 絶對秘密嚴守
電話賣買
京城電話仲買店
東一銀行下側 電話光化門 二九七九番

恩給
長期短期低廉立替 他에比較事最有利 特色은신용의 即時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學生 京城驛前 電本四七四〇
檢眼 本校眼科教授 本院眼科長 擔任

時計景品附 三千個限原價提供
瑞西特製クローム側 十型腕卷
瑞西特製クローム側九型腕卷
瑞西特製クローム側八型腕卷
プラチナ絶對不變色地金 クロームスーパー側腕卷
瑞西特製クローム側男持提時計
瑞西製十八金側腕卷 造幣局檢査濟
クローム側懷中時計
クローム側腕卷時計

絶對 正確
瑞西製及國產品 價特大整理品 此機勿失
景品 提時計の方へクサリー本 腕時計の方へは皮腕一本 八圓より20個年保險證進呈
全品何れもルビ入アンクルパリス型
前金御注文送料弊店負擔 代引送料不拔
47錢以下ノ品代引ハ扱ヒセズ
送金は小爲替又は振替東京三九三一五番へ拂込 切手は一割增し
東京時計商工社
東京市向島區東三丁目十六番地

電話增設廣告
謹啓 從來本社部에서 電話四四番、一五五五番兩番을 使用하여왓습니다만 僉位의 愛護하여주심을 蒙하야 業務는日益繁昌되옵니다 따라서電話二番으로는不足이오니 最近二四番을 增設하엿사오니 倍舊下命하여주심을 바랍니다
平壤 旭町
平安タクシー



鴨江災地에서

上으로부터 鐵路우에 避難民. 安東縣舊市街浸水光景. 新義州稅關棧橋附近增水光景. 新義州停車場의 災民

減水後被害額擴大
家屋流失倒壞四千
京義線은 아직復舊안되고
郵便物만은徒步遞送

【二日警務局着電】 평북수해상황에서 긔보한외에 새로판명된것은다음과갓다

一、인축의피해

행방불명자 신의주(新義州)에세명 선천(宣川)에서 사상자한명 루게팔명

一、가옥의피해

도괴와류실 ─ 의주(義州)六九三 창성(昌城)二四 루게四、四二七 침수 ─ 의주七四六 선천二 창성七四 루게四、九九〇

三、도로의류실

선천(宣川)九메돌 루게四三、一四五米

四、橋梁의流失

선천一 자성(慈城)二〇 태천(泰川)루게七九

五、경의선 석하(石下)부근의철도파손장소의 복구공사는 아즉긋나지 안엇스나 우편물만은 일일오후 부터도보로 체송을 개시하야 련락중이다

六、일일오후 십시현재의주 잔교(棧橋)의수위(水位)사『메돌』침십이를 나타내이고 점차감수하고잇서 도내일반에 전후도 회복하야 인심의안정은되엇다 그러나특히 주목되는것은 가옥의 도괴와류실이 사천사백이십칠호의다수에 달하는것이다

京義線列車는
二日夜부터開通될듯
工兵隊出動으로進捗

국제간선의 중요한 지위에잇는 경의선 신의주석하(石下)사이의수해로인한 불통개소 복구공사를 응원하기위하야 일일 오후일곱시 서빙고(西氷庫)를 출발한 룡산공병이십륙대 장교칠명 하사관구명 병사일백구십팔명은 이일새벽 림시렬차로 현장에도착하야 실고온 철주(鐵舟)기타공사재료를 내려노코전쟁출동의 훈련으로서 각자조반을 마친다음에 송하(松下)대위 지휘아래 륙시삼십분 철도계원을 응원하야 복구공사에 착수하엿다 천긔는 쾌청하야 제일일교(第一鐵橋)에서 제오일교간 약오백미돌되는 참담한 피해현장도 복구공사로 착착회복중이다 이대로 진행한다면 금이일오후 십일시까지는 개통되리라 함으로 철도국에서는 동시각경에 동현장을 통과할 봉천발부산행 려객제오렬차를 비롯하야 사일간 두절되엿든 경의선도 겨우개통을 보게되리라한다

新義州各界人士
救濟會組織活動
各方面의同情을懇望

【新義州】 조선중앙、동아、본보의각신의주 지국의대표자는 신의주구제회조직을 발의하야 삼십일오후여섯시 신의주 긔독청년회관내에서 부내 이십사개단체가 회집하야 신의주구제회를 조직하엿는데 각자가하는 구제를 통일하야 질서잇고 완전한 구제를하기로한바 이만오천명이라는 엄청난수자의 리재민에 대하야 도저히 완전한구제를 하기어려운일이다 사람으로서의동정을 안이할수업는일이오 또우리로서 구제를한다함은 의미가심장하다는것이바 각방면에 만흔후원이잇기를 바라고잇다 동회의조직내용은

委員長 崔昌朝 副委員長 李京昌河 調査部孫斗景 庶務部李鳳道 募集部金景瑞 配給部崔東樹 財政部白世彦 救護部金鳳文

銀貨白銅貨의
僞造大流行
警察도搜査에頭痛

이지음 경긔도내 각지방에는위조 백동화(白銅貨)가 대류행되야 경찰당국은 머리를알는중이다 지난칠월삼십일에는 경부선 병점(餠店)역에서 이십사일에는 려주(驪州)양조회사리공표(李鐘村)의집에서 각각십전짜리 위조 백동화가 발견되엿는데 이십팔일오후 열시경에는 양주군은현면도하리(楊州郡隱縣面道下里)홍성대(洪性大)가 중림동(中林洞)염천교부근에서 참외를 팔든중 참외판도중에서 위조오십전짜리 은화를 한개발견하고 삼십일에는 개풍군봉동역(開豊郡鳳東驛)에서송본춘성(松本春成)(五一)이가 차표판도중 계산한든중 역시십전짜리 위조 백동화 한개를 발견하엿다 이위조화폐는 상당히교묘한것으로 비치송거문것과다소 가벼운듯하나 어둥운곳에서는주의하지안흐면 속을정도의것으로 경찰당국은 범인을 수색코저노력중이나 아직까지 단서조차엇지못하야 내탐만 계속중이라고한다

債權詐欺犯

부내당주동(唐珠洞)입백사십사번지 리봉창(李奉昌)(四七)은 지난 칠월오일 오후력시반경 부내청진동(淸進洞)삼십일번지 전영자(全英子)(三九)의집에 차저가서 당첨률(當籤率)이만흔 채권을 박권주마고하고 그가 가지고잇는 권업채권십원권 한장과부흥(復興)채권 십원권석장과 오원권한장을 속혀빼슨후 채권가터 인쇄한 갓자채권을준후 어대로도망한사실이 발각되야 그만종로경찰서에서는 비밀리에 그의행방을수색하든바 이일 오전여덜시경 종로일정목 근처에 방황하는것을 발견하고 곳그서에인치 취조중인데 이외에도 여죄가상당히 만을모양이라한다

京城水防團準備

경성부에서는 명이일 오후두시에 회의실에서 림시부회(府會)를 소집한다는바 당일의 의안은 이번에 조직한 경성수방단(京城水防團)의 추가예산을 승인밧기위함이라한다

所謂名家紳士
麻藥密賣團
本町署에서四名檢擧

지난 이십이일부터 시내본정서에서는 시내수은동(授恩洞)사는 남작(男爵)리모(李某)의친형리기연(李基然)을(假名)중심으로한일당사명을 아편(阿片)밀매혐의로 엄중취조중이든바 취조가 일단락을 지엇슴으로 이일에 일건서류와가치 사명을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 사건내용은 일당중 김호용(金鎬容)은 모처에서 국비밀리에마약고까인『오그람』든병을 십원식에 매입하야 리석환(李錫煥)에게 십이원오십전에팔고 리석환은 다시 박병태(朴炳泰)에게 십오원혹은 십륙원식에팔고 박병태는 다시 아편중독자들에게 소매하여왓다는데 일당의 매매행동은 상당히 넓은범위에미처 교묘한수단으로 금년삼월이래 전후수천원의 밀매를 하엿다한다 그들의 배후에는 상당히 큰밀수단이 잠재한것가튼데도 불구하고그들은 미체포중인 리규필(李圭弼)에게 범행일체를 빙자하고자백하지 안는다한다 일당은 전부가 문벌에속하는 소위신사부루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市內長沙洞八六 金鎬容(三七)
市外敦岩里四五 李錫煥(三二)
市內授恩洞一二 李基然(三〇)
市內社稷洞九 朴炳泰(三二)
市內黃金町三丁目一〇六 李圭弼(三〇)
(未逮捕中)

興南警察에서
青年數十名檢擧
反戰記念日關係로

【興南支局電話】 칠월삼십일이후 당지 경찰서에서는 팔월일일의 반전데이를 당하야 엄중경계중이든바 일일에 이르러 구룡리(九龍里)방면에서 리모(李某)외 십여명을 검거하야 취조중인데 사건의 내용은 비밀에 부치고잇스나 함흥방면의 반전격문사건이 잇슨것등으로보아 역시 반전데이를 당하야 어떤책동을하든 비밀문자가 잇슨듯하야 그방면의 검거를 개시한 모양으로 사건의 전개가 주목된다

滿浦、价川線全部開通

수해로불통중이든 만포선(滿浦線)은 작일일 오후세시십분에、개천선(价川線)도 금이일오전여덜시십분에 각각 복구되얏다

大邱는百度超過
連日殺人的酷暑
日射病으로四名死亡

【大邱電話聯合】 련일살인적 혹서가계속하야 이십구일에는 삼십사도구 삼십일은삼십오도 삼십일일은 삼십칠도일로 수은주는 계속올러서 일일에는 삼십오도륙 이날오후두시 조선은행압섭자로에는 삼십구도 동성정(東城町)파출소압은 사십이도(華氏百七度六)라는 엄청나는더위이다 이때문에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야 삼십일일 오전열한시에는 남산정(南山町) 륙백오십팔번지 최재봉(崔在鳳)(四九)이가 일일에는 신정(新町)일백십오번지 신긔남녀(申己南女)(三)와 성원찬(成元燦)(四〇)홍연식(洪淵植)(二)등이 모다 일사병으로 즉사하엿다

仁川市內에
痘瘡猖獗
六名을發見

【仁川】 인천은 중국항로의지점이요 또한경성의관문이다 양자강연안에 호열자발생과 한가지 불생를엽시 방역에 노력하든중 돌연 지난삼십일부터 방역진을 뚤코 계속적으로 두창환자 삼명이 발견되야 인천서 홍(洪)위생주임은 아연실색하고 시내를 일체소독하든중 지난일일 또 류명을 발견하야 합구명에 사망일명인데 환자는 다음과갓다

桃山町二一 安氏(三) 崔必生(四) 方千蘭(三) 方興山(三) 崔昌玉(四) 金貴男(三)

漢江에投身自殺
昨日에男女四名
最近暴炎地獄의脫線者續出
一名救助、三名은屍體도못건저

【京南】 한강에서 하로동안에네명이 빠저다가 요행한명은 구하엿다

▲지난일일 오후아홉시놉느란 한강철교우에서 흰옷을 입은한 이십륙세된 녀자가물아래로 떠러젓는데 즉시소봉환(小鳳丸)의 주인 김소봉(金小鳳)이가 모터뽀트로 달려갓스나 발견치못하야 구하지못하엿고 교상에는고무신 한켜레만 버서노아서 아즉것신원조차 모르고잇다

▲이날오후 아홉시반가량한강교건너 한강신사아래에서는 시내현저동(峴底洞)산사십륙번지동석해(薛錫海)(二七)가 놉드란바위우로 부터 몸을던저자살하려는것을 때마츰 선유하든 사람들이구하야 룡산경찰서에다가 보호를청햇다 원인은 신병을 비관한것이라한다

▲또이날 오후한시반가량 한강신사아래 수풀에는 남자의게다한커레와 녀자의 흰고무신한커레(모다새것)가 노혀잇서 아도여시 전날밤에 정사를한모양으로 소봉환(小鳳丸)의 주인으로 한강교 파출소에다 계출하엿는데 동소에서는 그들의 신원과 주소를 조사중이라한다

天氣豫報
晴曇不定

颱風은 沖繩南五千粁海上에잇서 中心은 七三九미리 內外 暴風이고 西北西로 進行中이요 또 弱한低氣壓이 北海道北東岸에잇다 日本南方海上에든 南氣壓의勢力은 漸次減勢가되어 朝鮮의氣壓配置도 漸次雨季를 버서나나 朝鮮과滿洲는 흐리기쉽고 平壤에는 少雨가 잇스며 日本은 大體로 天氣가조타

昨日最高 三〇度一 最低 二四度五 今日正午 三〇度

運動競技
徐君第一戰에
比島베君과
來卄五日東京서

지난三十日 橫濱에到着한 徐廷權選手는 橫濱까지 出迎한 親父內奉氏와 日本拳鬪聯盟役員들과함께 午後五時二十五分 橫須賀發電車로 東京에 到着後 銀座茶店에서 열린聯盟主催의 歡迎會에 臨하엿다가 宿舍山王『호텔』에서 旅裝을풀엇는데 同君歸國第一戰은 來二十五日밤 戶塚球場에서 擧行케된바 其相對는 昨年比律賓의『빤탐』級選手權保持者인『구리스·베네다』選手로서 第十回戰을 行키로決定되엿다한다

都市對抗野球
對陣을決定

【電通東京電話】 第九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는 來三日부터 神宮球場에서 擧行할터인바 二日午前九時부터 東日會議室에서 抽籤한結果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

▲第一日(三日) 午前十時半 入場式
A、正午、全大阪(大阪市)對 太陽俱樂部(函館市)
B、二時半、全神戶(神戶)對 코럼비아俱樂部(川崎)
▲第二日(四日)
C、十時半、奉天滿鐵俱樂部(奉天)對 仙鐵(仙臺)
D、一時、米子鐵道俱樂部(米子)對 滿俱(大連)
E、三時半、全京城(京城府)對 千里俱樂部(千里山)
▲第三日(五日)
F、十時半、東京俱樂部(東京)對 臺南州團(臺南)
G、一時、코마살(新潟)對 名古屋鐵道(名古屋)
H、三時半、全大宮(大宮町)對 八幡製鐵(八幡)
▲第四日(六日)
가、正午、A勝者 對 B勝者
나、二時半、C勝者 對 D勝者
▲第五日(七日)
다、正午 E勝者 對 F勝者
라、二時半 G勝者 對 H勝者
▲第六日(八日)
正午 가勝者 對 나勝者
二時半 다勝者 對 라勝者
▲第七日(九日)
二時半 決勝戰

日本選拔庭球入京

全日本選拔庭球團 一行十五名은 二日午前三時에 京城驛列車로入京、一息後 改築한京城運動場庭球코-트에서 初練習을하엿다

白馬山以北漲溢
新義州는孤島化
救援列車로冒險하여突入한
本社記者災地踏査記

【新義州서 本社特派員 高鳳梧發信】 중부조선의 수란(水亂)의 여진이 꺼지기전 지난삼십일에 국경일대를 업탑한 수마(水魔)의 광약(狂瀾)으로 류십년래의 파괴로적대홍수라는 급보를드른 긔자는 삼십일 오후세시삼십분 경성역발 『노조미』호 재지로 향하엿다 긔차는 평양역을 지나 신안주(新安州)에 다아라할제 차장은 승객들을 향하야 이렬차는 신의주 석하(石下)역사이에 철도가 류실되여부득이 선천(宣川)까지가서 되도라 서울로 오다는 반갑지못한 보고를하엿다 승객들은 긔자뿐아니라 모다가 불만한안색으로 선천역에다이니 때는 밤열한시! 선천역두에는 신의주 방면에 친척을 둔이들이 나와서서 신의주서 오는 손들에게서 저편 소식을 알려고 두승거리고잇스나 교통이 두절되신의주의 소식은 캄캄하엿다

◇

렵자속에서 밤을새우려 할제 새벽두시 인부와 철도수선도구를만재한 구원(救援)렬차가 선천을 통과하엿다 이때 긔자는 이것이야말로 천재일우의 호긔라 인부인척하고 구원렬차에뛰여올랏다 오전다섯시 석하(石下)에이르러 백마산(白馬山)록에 올라가 멀리 신의주、의주、안동현의회도 (威化島) 등의 범람상황을 바라보니 조선중은의주금강산(義州金剛山)과 백마산으로부터 만주증은 구련산(九連山)、원보산(元寶山)진강산(鎭江山) 방면까지 칠십리사방이바다로 변하엿다 의주의자랑인팔성(八城)평야의 옥야는 자최조차 보이지안헛고 제방에 둘너싸인 섬의주만은 바다우에 서잇는 셈이되고말어 실로 상상이상의 처참한 정경이 눈압헤 전개되엿다 목적지 신의주에가려는 욕망이 가득찬 긔자는행일가 한척의 조그만배를 구하야탈을 헤치고 약삼천메돌가량을 즈어서 신의주 각가히잇는 칠수되지안흔 철로에 간신히도착하엿다

◇

거기서 도보로 우선전면상태에빠진 마전동(麻田洞)을차즈니 여기는 전동리삼천호중 겨우 십여호를남기고는 모다물속에 잠기고그안에잇든 일만칠천여명의 주민은 삼십일일 오전두시 캄캄한밤중에 아우성을치며 밧그로나와 안전지대를 차저서 장정은 로약을 이끌고 제방과 철로길로 헤매여나오며 혹은 집웅으로 나무가지를 더듬어 올나가는 한편 경찰서원 소방대 수방단(水防團)의 총출동으로 대개구호를바다 오전다섯시희미하게사람의 그림자를 알어보게될때는 위험구역을 버서나철도길과 동뚝으로 나섯든것이다 바라보니 도도한탁류뿐 삼천여호가 빽빽히들어안젓든 마전동 넷동리는 지금자최도안남고 여기저기 집웅ㅅ이공동묘지의 분총(墳塚)가티 물우에 떠잇슬뿐이엇다

◇

살든 가옥과 가장중한물을 모다 물에 떠우고 당장입을 의복도 먹을량식도업시 알몸동이만 남은 리재민들! 그수는 실로 이만오천명! 제방우에는 이리재민들이 섬을싸은듯이 둘러서놀래인가슴을 안정치못하고 떨고잇섯다 이들은 마전동의 이만명리재민과 위회도고성(古城)팡성 각면으로부터 몰려온 리재민을 합하야 총수 이만오천명은 신의주의제방에 옹망울지은사람이는 다소 가장을 건지사람) 이천여명을 비롯하야 제일 제이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도수장、제일교회、제이교회、국경로동조합、신의주정거장등에 수용되얏스나 벌서 피난후 이틀밤을 지나자 병마까지 엄습하야 눈물업시는 참아보지못할참혹한 정경을일우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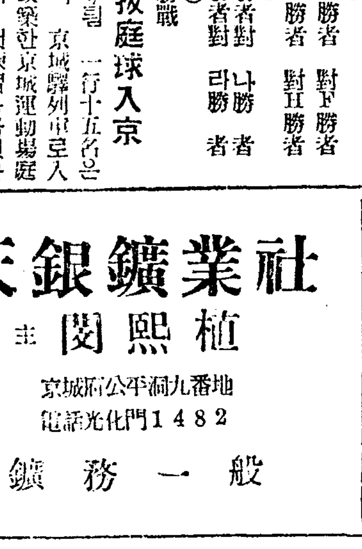
通行禁止中의
鴨江鐵橋를건너
罹災同胞二千餘名

이날오후다섯시 안동현의 리재동포 상황을 조사코저 룡행금지로 되여잇는 압록강철교에 이르러 그곳파출소의 량해를어더가지고 단신철교를 건느게되엿다 이때까지 수위는 륙미돌이상으로 바로발밋까지 불과한길남짓하게 물이올라와 무서운긔세로 소래를치며 흘으고잇섯다 그런데 강안에 해마다 산척하엿든 목재는 불가업마남기지안코 대부분이 류실되여 손해액 일천만원에달하야 목재업은거이 전멸상태이라고한다 안동현에잇는 동포들은 부속지(附屬地)외에 사는강안통(江岸通)구시가、륙도구(六道溝)등지의 빈민들에잇서 침수가옥이칠백여호이요리재민이 이천여명에달하는데 방금보통학교수산당(授産堂)등에수용하여 잇스나 이번수해에가장심한곳에 거주하든 이들만 입으로 물은 찌엇다고하나 시급히 거처할수업는 상태임으로 극히참혹한정경을 이루엇다 (계속)

三木ピアノオルガン・洋樂器・蓄音器各種レコード
SUNIL
京城鍾路韓靑ビル
鮮一樂器店
電話光五七七番・振替京一七五八一

卅一日より短期特別公開 英雄征服必勝の大衆畫報 十巻 一
大都映畫特作時代活劇 原作脚色…小原武雄 監督…大伴龍三
新星、上原二郎主演
一番ケ原決闘記
琴絲路、伊丹慶治、東龍子、山吹徳二郎、久松玉城、若月輝夫共演
砂塵萬丈高澹たる西部の荒原に數百の野馬を追ふ壯觀さ爭に強き俠漢の鐵腕は躍る
パラマウント超特作發聲日本版 ヘンリイ・ハザウエイ監督作品
ランドルフスコット大猛演
白馬王國
サリイブレーン フレツトコーラー 共演
不可解なる落石の爭奪を中心として旋風の荒鷲にも似たる鳥人ハヤブサヒデトの快心の大猛闘活劇
大都超特作猛闘大活劇 原作…谷幹鳴、監督…大江秀夫
ハヤブサヒデト主演
旋風の荒鷲
宮城浩二、琴路美津子、高村榮一 月島小夜子共演 松村光夫、遼山龍之介
櫻井町 本局 金 大正館

八月二日부터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七時半)
映畫鑑賞은 團成社에서 언제든지第一級名作封切
▲파라마운트超特作日本版 로마노프朝말년빗나든때 카리린女王을들러싸고 露西亞宮廷깊은 속에서일어나는情炎秘史!
마르레느 떼트리히主演 요셉폰·스탄벨크監督
사랑의 페트
▲파라마운트超特作日本版 노만타로그監督作品
大學의리그合
쪼·페너、짝크오키- 다니로스 主演
大學의리그合대로百貨店經營을하여보다면이러한기막히고腰折할名景劇이생겨남니다
▲第一映畫全發聲映畫 伊藤大輔監督 正木不如丘原作
お六櫛
山田五十鈴、夏川大二郎、中野英、治月田一郎、歌川絹枝主演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九九 團成社

劉道順作詩 江口夜詩作曲 流行歌

눈물비녀
蔡奎燁
人氣白熱化!!
콜럼비아레코-드

○鑛業家의渴望하든 新改正版이出來 ○勿失! 出版當日에 一千部가賣盡○○

鮮文 朝鮮鑛業令 現行 附、一般鑛山發見法
美本全一冊 定價金一圓五十錢 書留送料十四錢 (要先金)
本書는 昭和十年度新改正된 鑛業令과 銃砲火藥取締令을 비롯하야 鑛山에 關한 出願及登錄書式各種과 鑛業登錄規則、假登錄及豫告、登錄稅令 燃料分析、試驗及鑑定規則、鑛業地質技術官派遣規則、土地收用令、金銀探鑛獎勵金交付規則、各種鑛山發見法、各鑛石鑑定法、及鑛脈鉛頭鑑定法、製鍊法各種其他鑛業에對한 諸般手續을 一覽도會得할것이니 一般鑛業家諸氏의 一大寶鑑이다 卽時購讀하시오!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二〇 振替京城三九〇一 德興書林

朝報案內
少女募集 滿十四、十五、十六歲程度의 食堂少女二十名을採用함 (但日本人五名) 鍾路韓靑ビル二階 韓靑食堂

天銀鑛業社 主 閔熙植
京城府平洞九番地 電話光化門1482
一般鑛務

旗 カメヤ旗店
機械 會 學校 優勝旗 商店旗 國旗 幕
京城府黃金町五丁目七番 電話本局一五八五番 振替京城八三四四番

●三四年을보내며 三五年非常時의初夏를 두엇으로 마지하나? 江湖諸賢께告하나니 全世界가機械의으로말하는 時上의姉이며 交通界의王인自動車를아리라
●現下趨勢에應하야 滿洲의 分校를 新設中 滿鮮各界로 進出하는 여러분은
男女學生募集
◆第一期生募集 (開校當時) ◆第二期生募集 (大京門前) 市外各地
南大門自動車學校
改訂學則 要二錢送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八六七番 (振替二三〇五六)

구름 ―비람끼도업다―

어른이 방심못할 처녀의 감상시대(感傷時代)

유체의변화가 곳정신에미친다

특히 녀학생의 하기방학

어른도아니고 어린애도 아닌세계 그러한 독자의세계에 사는것이 중학교의 삼사학년에 재학하고잇는 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때를 일반으로 감상시대(感傷時代)이라고하나 이시기의

녀학생의심경

이란 성인된사람으로는 도저히 짐작할수업는 신비한세계에서 노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어느 교육가의조사한바에의하면 녀학생의 성적이 보통삼학년의 이학기에서부터 사학년의 삼학기까지에 매우 떠러진다고 하엿습니다 웨그러냐하면 그때에 그들은 매우번민하는것입니다 무엇이무엇까닭인지도 모르고번민하는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나시시에

특유하게잇는

감상성(感傷性)입니다그리고 또 이때에는단체생활에대해서 매우 고통을늣기는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이조흔동모를 골나서 그동모의생활을 자기의 생활가운데로 끄러너으려는 경향이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녀학생의위긔(危機)인것입니다。그럼으로 이러한때에부모되는니가 자녀의 조흔친구가되고 정서것 충고하는 사람이되지 아니하면 그녀학생의 일생을 망치는수가 잇습니다。그러면

이러한현상은

무엇에서 유래하느냐 하면 의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처 육체적 변동이라고합니다。빨는사람은 一、二학년때부터 신체의발육이 놀날만치 잘되여서 골격은늘고 피하지방은 싸혀서 근육이 느러나고 피부는 점점 윤ㅅ긔를띄게되며 머리칼은 칠을한드시 빗갈이나며 눈ㅅ동자속에는무엇을 그리워하는듯하고·수치의 감정은 느러가서자 긔도모르게 일반동작이고 고혹적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말하자면

한사람의녀자

로서 완성의과정이라고 하겟는데 이러한 육체적변화가 또한 정신적변화를 이르키는 것은 당연한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민과 신비스러운 경신상태가 곤혹경으로 낫타나는것인데 좋게예의하면 녀름방학에 초경이 제일만타고 합니다 그것은 긔온의 관계와 태양광선의 강한 자국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그럼으로 이때에는 부모되시는니가 매우주의해서 첫재 그것이 생리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것을

잘깨우처주고

자긔의 경험갓혼것도 이야기해주어서 갑작스러운 유체적변동에 대한 공포심이 업도록하는것이 조흘니다。그리고 월경직후에는 영양분을 만히섭취하도록해야 하는것입니다。더구나 초경일때는 일반적으로 식욕이줄어서 영양이부족한때문에 신체의 저항력이 업서서 다른병이 침범하기쉬운때올입니다 다시말하면 인생의 첫거름을 출발하는이때가 매우 중요한만큼 부모되시는분은 책임지고 잘 지도하지 아니하면 안되겟습니다。

어찌하리까?

친정을살리라고 싫은혼인할까요

問 저는 이십세의 처녀입니다。집안은 부모님과 저와 동생、사내동생、다섯식구입니다。제가 중학교를 마치는 재작년까지도 집안이 웬만햇스나 아버지께서 다니시든 회사를 그만두시고 조그마한 가게를 내셧스나 잘이 안되여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되엿습니다。그런때 요근래에와 아버니께서는 저의 혼인말을 작고께내시며 엇떤 남자에게 작고 시집을 가라고 하십니다。상대자 되는 남자는 저와한동리 사람의 아들인데 풍편에들으니 재산은 넉넉하나 머리가 조치 못해서 중학교는 입학도 못하고 보통학교도 간신히 여러번 락제를 해가며졸업을 햇다합니다。그리고는 이자피 더공부하기는 글르고해서집안에 놀고잇다합니다。나이는그도 스무살 그이의 아버지가 저의아버니께 자기아들이 저에게 장가들 생각이잇고또 며느리깜으로 훌륭하니혼인을 하자고 작고조르면서 혼인만 한다면 매월생활비의보조를하겟다는 조건을부처가며 야단입니다。

아버니의 제가 모르겟습니까? 사위될사람이 똑똑지못한줄은알지만 집안형편이 어려워 사라가기가 갑부니까할수업서서 저를 그집으로 보내겟다는 결심도 가지신모양입니다

그러니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위하고、큰누이된 도리로동생들을 위하야 한몸을희생해볼까 아모리 똑똑지못한사람일찌라도 마음만 선량하면 ?하는생각에 결혼생각이 문득나는수도잇습니다만은 그다음순간에는 곳비관이되여 먼데로가버렷스면? 죽엇스면하는생각도듭니다。지금의저의처지에 잇서서 저는 어떠케해야되겟습니까? (開城 正子)

그덕을입는댓자 행복은안되리다

答 단순한 경제적리유만으로 그런데로 시집간다는것은 당신을 위해서 그런즐해이업겟고 다달이 살림원직을바더 (이나만도 장래를보증하기어렵습니다) 집안이견데다할찌라도 부모나 동생들이결코 행복 되지못할 것입니다。부모님을 위하야 희생한다는 말(言)은――생각은 아름답다할찌 모르나 실제에드려서 그러케 한다는것은 너무나 지나친 효도입니다。부모를 위하는것도 내몸의체면을 세워가며 하는일이지 내몸을 엇지식혀가면서 하는것은 결코 효도가 못되리라고 믿습니다。내가 훌륭한사람이되고、훌륭한 사람의 훌륭한 안해노릇하는것이 당신의 리상이라면 이리상을 관철하는날 당신이 부모에게대한 효도를 다하는것이 될것입니다 단연반대하십시요。「부득이해서 결혼햇소」따위의 말이 나지안토록 후회가안되도록 미리방지하십시요。억지로도 정도가잇습니다。설혹의지를 부려승부를 결해보십시요 그러나 올곧을큰 하지마시고 엇떤일이 잇드라도 사근사근히 정으로 리치로 눈물로 아버지를 설복식혀야합니다 ([illegible])

시원한것한잔〃드시지요―!!

손님압페내노을양화채

집안에 손님이왓슬경우! 외국가정에서는 대개찬수건을 먼저 내어놋습니다만!우리가정에서는 먼저 래국선이나 냉미선으로 내어노켓지요。그다음에는 선선한것을 대접한다고 참외 수박이나 회채를타내는것송이 의례하는법식처럼 되여잇습니다。그러나기왕이면 서늘한 먹을것이라도 별미를 내어노코 면진절이한층더한것도잇고 생색스럽기도할것입니다。그러면 엇던것이조흘까?

오렌지단산 (나쓰미깡을한)

사람압해 적은것한개、혹은큰것반개를 속을뽑아곱부에 집웃찬니다。거기에다 먹는소다(重曹)를 적은사시로 반가량、한설탕을 큰사시로한 사시타고、그다음에는 차디찬물을 곱부에 그득차게붓습니다 그러면 탄산수모양으로 자디잔버큼이 보글보글오르며、맛이참조습니다。거기에다 어름을 깨트려넛는다면 한결더낫지요。

애플주―스 (사과한개분한)

사람분으로하고 어것을 강판에대고 갈아서 정한행겁에짜가지고 곱부에따르고、와 잘게깨트린어름을넣어 설탕을알마치 탄다음 냉수를 곱부에 그득차게부어 되고 빙수모양을 가른것보다 잘게 깨트려 짓찌어서 크고 적은것이 석긴것이 운치가 잇습니다。

×××

學科의땀

몸을위해서는 흘리라는땀

신진대사가 잘되는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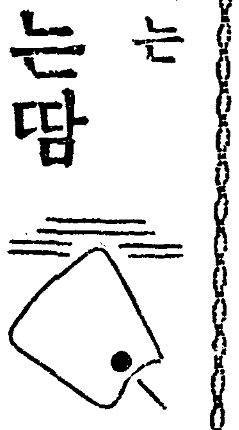
땀의가치가 또잇스니―근로

여름날―더구나 요새가튼날에는 땀이몹시나는데 땀이안난다면도리혀 보건상 자미업는것입니다 엇재그러냐하면 여름에는 기온이놉하지기때문에 혈관에충혈이되고 몸이더워집니다 이열을 조절하기위하야 몸에땀이나며 땀이나기때문에 체온이 식어져서 서늘하게될뿐아니라 땀에는 신체의신진대사에의하야 필요치안흔 분비물이석겨서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몸에 어데서 제일땀이 만히나오느냐하면 한선(汗腺)이 가장만흔부분―겨드랑밋、사태、무릅오금、모의욕혼자리 목덜미입니다

여름에 땀이 만히난다할찌라도 체질에따를수가잇는데 한겨울에도 음식먹을때 땀을뻘뻘흘리는 사람이잇고、여름에라도 그다지 땀을안흘리는사람도 잇습니다만 이러케 땀을만이흘리고 적게흘리는것으로 건강하거나 건강치안커니말할수업습니다 뚱뚱한사람이 비교적땀을만히 흘리는까닭은 몸이큰이만치 피부의면적이넓고 따라서 한선이 만흐며、또한몸을놀릴때『에네르기』를내새기때문입니다。가른땀에도 도한(盜汗)이란것은 건강한사람에게업고、신경쇠약、영양부족、폐결핵환자에게서 납니다 땀의성분―땀에는 무기물(無機物)과 유기물(有機物)과의 성분이잇서 유기물에는 중성지방(中性脂肪)、코래스테린、휘발성지방산류(揮發性脂肪酸類)、뇨소(尿素)등이잇고、무기물에는소금(食鹽)크롬카르쓰산(硫酸)염류(鹽類)나도륨、린산토류(燐酸土類)등이잇습니다。땀이조금 나올때는휘발성을띄우기때문에 곳증발해버리지만만히 나올때는 모세관작용으로 적은것이합쳐서 소위 주먹가튼 땀방울이되여 흘너나리는것입니다

땀이 날때는 곳훔처버리는것이 조흔데 오래두면 염분(鹽分)이 때문에 땀구역(汗腺)이맥혀 피부가 거치러집니다。그리고 소위 땀내가 몹시난다하는데 그것은 겻내(腋臭)가 잇는분에게 그런것입니다。그런냄새야 보통땀내는 다릅니다。엇잿든땀이나거든 곳씨서몸을정히하는것이조습니다 가만안자잇슬때 나는땀은산성(酸性)이지만 몸을 놀릴 때는 『알카리』성으로 변합니다。

더운때땀흘리는것은 자연의생리적 작용이라 오좀누는것과가티 몸에잇는 해로운것을 박그로 내보내는 것임으로 수분을 야만히 섭취하고 땀을만히흘려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십시요 그리고땀에도 『신진땀을흘렷다』하는 말이잇는데 마음이몹시긴장될때는 땀이납니다 땀은마음먹기에 따라 덥거나춥거나 다소완화될수잇는것입니다。



땀덜나게하는법 / 나드리하기전에는 / 물끼잇는것이금물

땀을예방하는법―대개부인네들께 소용될것갓습니다만 ―외출하실때는 두세시간 전에부터 수분이만흔 음식을 잡숫지마십시요 그리고 나드리옷을 가라입으실때 땀이나거든 뜨거운물수건(시다오루)으로 얼골이나 몸을딱고、알콜분이만흔 화장수를 바른다음、가루분을 듬뿍뿌려두면 땀이 그다지 흐르지안습니다 그리고 얼골이나 목에서나는 땀은 까―제손건(나뿐손수건)이나 물에축여 이것으로 꼭꾸―누르면 화장한것이 벗겨지지안습니다。또 땀을흘리시고 갓다도라오신경우에는 마른수건으로 땀을 씻는것으로 안됩니다 역시 뜨거운물수건으로 씻처버리시요 찬물수건으로 씨츠면 씨츨 그때뿐이지 곳 답답해집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씨츠면 모공(毛孔)속에잇는 땀도 다빠집니다。그런다음에『로―손』이나 가루분을바르면 땀띠가 나는일이업습니다。☆―――☆

世界文藝童話集

처음행복 ②

―露國 안톤·체홉 作―

崔秉和 譯

『어제밤 저는 주인에게 몹시혼이낫습니다。간난애의요람(아해들 잠재우기 위해서 흔들어주는광우리)을흔들고 잇는대어느사이엔지 잠이드러버리엿습니다。그러니간 주인이 저의머리털을 움켜잡고 뒤뜰까지 끌고가서는 엄하는마치로 이곳저곳함부로 따리엿습니다 요전에는 비웃을 씻스라고하기에 꽁지서부터 씻고잇스니간 주인아씨가 별안간 비웃을해서서 저의얼골에다가 내던지엿습니다。모다인정업는사람들뿐입니다。

구두방직공들은 나를놀녀주고나서는 술집으로 웟카(아라사술일홈)를 사라보내기도하고 주인의 외를 훔처오게도합니다 음식이 낫분것은 이루말할수가 업습니다。아츰이빵이고 점심이죽이고 저녁은 도빵입니다。차라든지 맛잇는습푸(국)는 모다 주인배속으로 드러가버립니다。

밤에는밤이라 졸림이와도 어린애를 보아주지 아느면안됨으로 변변히 자지도못합니다。하라버지 소원입니다。제발 저를 동리로 데려가십시요。이러한곳에는 어제든 하로도 참을수가 업습니다。

왕카는 입술을비죽어리면서 더러운손으로눈을 비비고는울고비비고는울면서 쓰기를 계속하시엿습니다。

『하나님에게 바람니다。그러치안으면 나는 죽어버리겟죠。고향으로 도라가거든 하라버지를 위하야 담배를 가루로 만드러드리지요。납부일할때에는 시도롬푸의 염소처럼 나를두들겨주십시요。

놀아서는 안되거든 주인대집 사어른에게 청을하시여서 구두를닥든지 무엇이든지 닥든일을 맛터보겟습니다。양치기노릇이라도 하겟습니다。이곳만은 참을수가 업습니다。

이러케하는동안에 매마저 죽어버리겟습니다。……고향으로 도망갈생각을 갓고잇섯스나 구두가 업습니다。찬서리가 무서움으로 맨발로는 갈수가 업습니다。

어른이 되거든 하라버지에게 친절히 시중을 드러드리지요。뵈옵고십흔 하라버지! 모든사람이 크리스마스추리(성탄나무)를 세울때에 올가·의너제너아가씨에게 청하야 금빗나는 호도를 왕카를위하야 조흔 어데두십시요」

왕카는 별안간 한숨을 쉬고나서 창을노코 한번더 창을바라다 보앗습니다。하라버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추리를 베이려숩속으로 드러가시는데 그때에는 언제든지 자기를 데불고가주시엇을 생각해냇습니다。그때는 엇더케 행복스러웟슬가!

두사람의 발밋헤서 사바사바발펴 부스러지는 서리를 드르면서 실가리 좋은길을 숩속으로 향해갓습니다。숩속에드러가서 압마즌나무를 차저내면 베이기전에 하라버지는 몸뿌리를 무시고 담배를 잡수시기도 하시고 냄새맛는 담배를 집어서 오래동안 맛터보시기도하고 추워서 몸을쭈구리고 잇는왕카를 놀녀주시기도 하시엿습니다。

그근처에는 입사귀가 떠러진 어린 전나무가 서리에 싸혀서 배여가지나 안나하고 서서잇섯습니다。그러자 별안간 톡기한마리가 록튀여나와서 싸힌눈을 연기가티 날니면서 한일자로뛰여 도망갓습니다。그러면 하라버지는 칭을홀니시면서 이러케 부르지지셧습니다。

『그놈을 노치지말어라 그놈을 노치지말어라!』하십니다 그리고 록기가보이면

『아아! 꽁문이짤분놈가트니』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시엿습니다。

나무를 베여너머트리고나서는 집까지 끌고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고잇다가 나무내다가 여러가지로 꾸미기시작하엿습니다。

어나무를 꾸미는데는 왕카와 사이가조흔 올가악앗씨가 가장 열심이엿습니다。어린왕카의 어머니인 빼라게어가 이집에서녀하인으로잇슬때 악앗씨는 왕카에게맛조흔 사탕과자를 만히주시엿습니다。

또 틈이잇슬때에는 읽고쓰는것부터 수를 백까지 헤어는것도 또 딴스를하는법까지도 아르켜 주시엿습니다。

어머니 빼라게어가 도라가시여서 고아가된 왕카는 하라또지와 함께 살게 되엿는데 얼마안되여서 하라버지의 슬하를 떠나서 이구두가게 아리아하의 집으로 일을 배호려보내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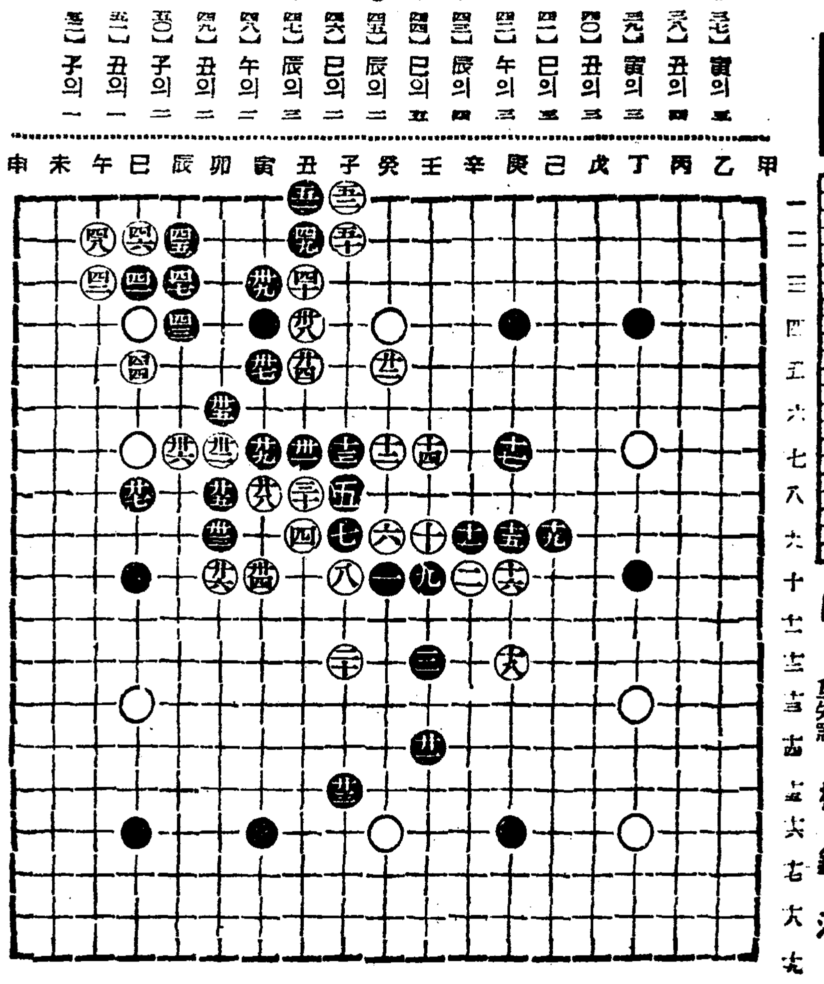
가족승자전거

영국에서는 날이더워질사록 자전거로 피서산책나가는 사람들이 만어젓는데 그중에는이와 가치의살마진 자전거가 생겨낫습니다。이것하나면 내외분、어린애들、온가족이 한께 타고 다닐수잇는데 실용적가치가 풍부한것이라 일반으로 점점더 류행할모양이라고합니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3】

白 閔仲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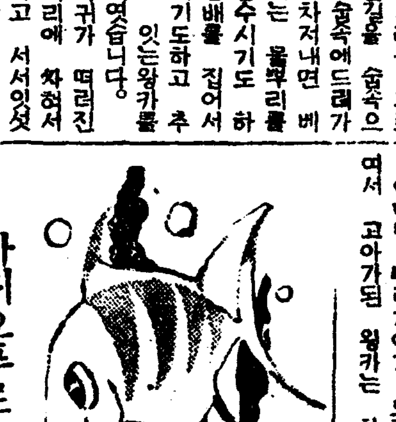
互先黑 柳鎭河



【●卄七】寅의五 【○卄八】丑의四 【●卄九】寅의三 【○三十】丑의三 【●卅一】巳의五 【○卅二】午의三 【●卅三】辰의四 【○卅四】巳의五 【●卅五】辰의二 【○卅六】巳의二 【●卅七】辰의三 【○卅八】午의二 【●卅九】丑의二 【○四十】子의二 【●四一】丑의一 【○四二】子의一

◇蔡極文氏評 白은 寅의 四黑將包圍策을 試用하고 黑은 自陣修補를 圖成하니 正히 紛忙한 時期로다 黑이 巳의三으로 先着함고 巳로午로 築着하엿스면 白의應對가容易치못할것이요 黑의 活路進展이 相當할줄로 推想하노라 巳의ㅣ 黑將臨內가 危險이 在邇하고 癸의四白連境도 尙未完保하니 左右取拔이 實難推度이로다

라듸오프로



娛樂

二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하―모니카獨奏 一、스에쯔…그로페作曲 二、타란테라…뷰―몬드作曲 三、할렐루잇포스트롯트…요―만스作曲 四、古城의鐘…플랑켓트作曲 五、아메리칸원스텝…片岡編曲 六、輕騎兵…즈페作曲 崔英植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夏季休暇中에注意할事項(二) 金鍊殷

◇同八時〇分 趣味講話 英國學校의現狀(二) 金顯大

◇同八時三〇分 特輯라듸오風景 樂水風景 全一景 金雲汀作

◇同九時一〇分 歌謠 一、길軍樂 二、白鷗詞 金水晶 大笒 金水根 杖鼓 金一守

◇同九時三五分 獨唱 一、그집압…玄濟明作曲 二、머―ㄴ산타루치아…마리오作曲 三、叱られて…弘田龍太郎作曲 四、바다로오너라 伊太利民謠 五、故鄕의廢家 하이스作曲 六、錦を收めて…中山晉平作曲 七、歌劇『아프리가니』中에서 마이어베―어作曲 오―아름다운나라여

三日 (土曜)

◇午前九時五〇分 (東) 野球試合實況 第九回全國都市對抗野球大會 ―明治神宮外苑球場으로부터―

◇午後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三〇分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여름 二、同 소낙비 三、兄弟 三、獨唱 별애기동무 四、同 언니 五、齊唱 달모둥이 六、獨唱 별님 七、同 외나무다리 八、齊唱 줄넘기 旺新學院兒童 피아노伴奏 金泰哲

◇同七時 라듸오學校 人造氷에對하야 張相哲

◇同八時 趣味講話 英國學校의現狀(三) 金顯大

◇同八時三〇分 流行歌今昔 一、녜터를차저서…鄭士仁作曲 二、京城은조흔곳…江口夜詩作曲 三、旅恨…池圓絃作曲 四、世紀末의노래…金龍煥作曲 五、沙漠의녀자 六、追憶…全基玹作曲 七、孤島의情恨 全玉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水宮歌 金煉守 鼓手 丁元燮

◇同九時三〇分 時調外 一、時調 二、지름 三、遊山歌 四、寧邊歌 五、노래가락 六、창부타령 金泰運 朴讚淑

四日 (日曜)

◇午後六時三〇分 안데르센先生死後六十年記念의이야기 안데르센先生의生涯 李軒求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마음밧과그씨 基督申報社長 全弼淳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日獨國際放送

◇同七時五五分 (東) 國內放送

◇同八時 (東) 獨逸로부터 一、올림픽벨 二、스포―츠辭演 第十一回올림픽大會 組織委員長(獨語)레오도르·레알드 日本語通譯 올림픽大會名譽會長 (佛語)피에르·드·쿠벨탕 日本語通譯 獨逸體育協會評議員(獨語) 카―르·듸―ㅁ 日本語通譯

◇同八時三〇分 (東) (獨逸로부터) 音樂

◇同九時 (東) 國內放送

◇同九時一分 라듸오·코메듸 洗濯屋生活 全 景(配 役) 모던떡이……李福本 그의妻……金蓮實 그의동무……[illegible] 게동어멈……金蓮實 서울오랑캐…… 演出 李慶雲 效果 效果班

◇同九時四〇分 [illegible] 一、[illegible] 二、愁心歌 三、[illegible] 四、[illegible] 崔貞子 金玉仙

曆

八月三日 (土) (舊七月初五日) 辛亥 金女定

●祭祀에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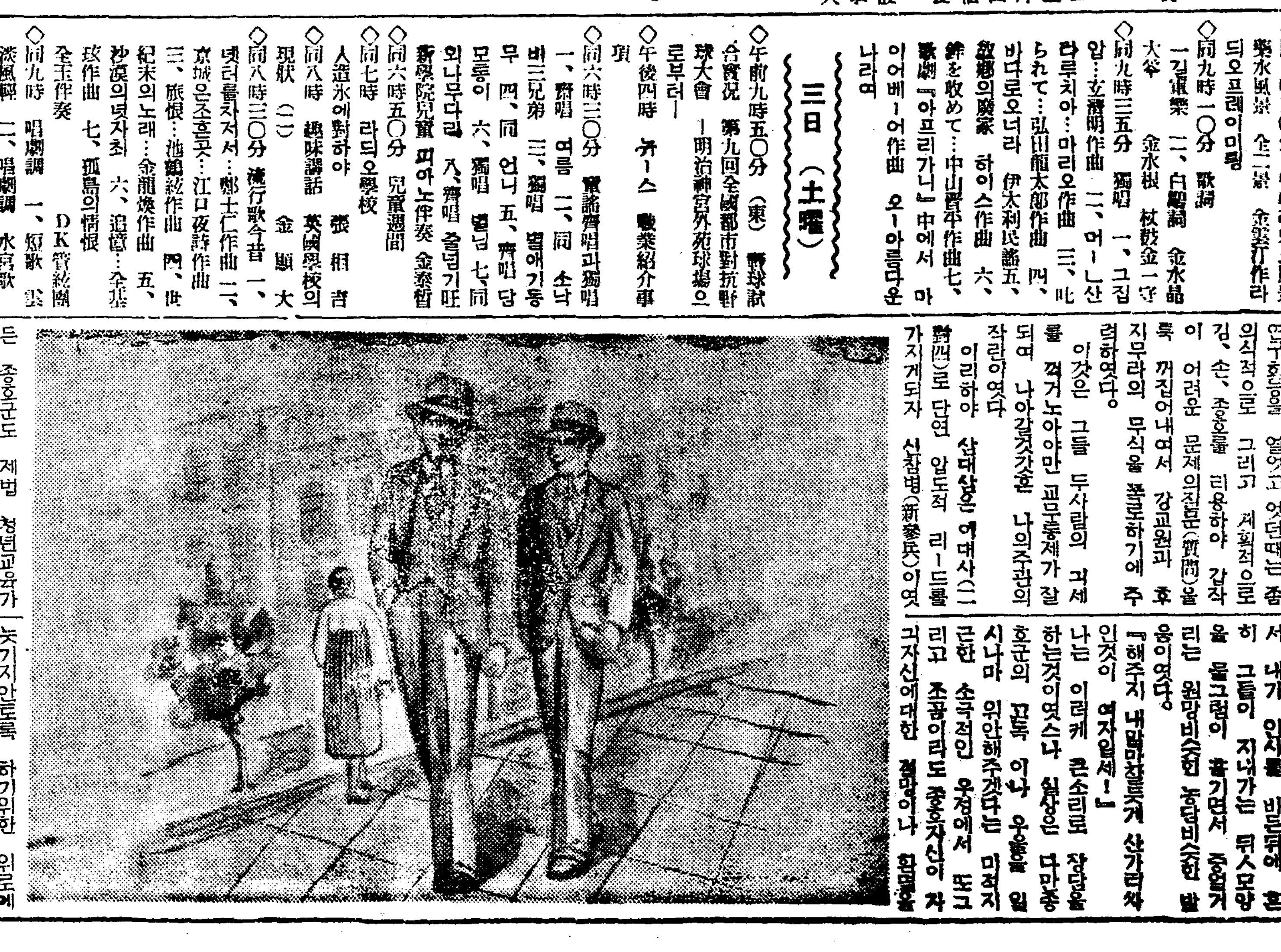
▲立秋 八日(舊七月初十日)

▲末伏 十二日(舊七月十四日)

▲處暑 (廿四日舊七月廿六日)

短篇小說 求婚行 (三)

嚴興燮 作 / 高一 畵



그리하야 나는 그들 후지무라와 강교원을 실력으로 극복(克服)식힌것과 인격으로써 암루적、파괴적、감정을 감화식히려는 푸란을 세우고 토요일이면 반다시 교육문제 토론회、연구회등을 열엇고 엇던때는 좀의식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김、손、종호를 리용하야 갑작이 어려운 문제의질문(質問)을 록 꺼집어내여서 강교원과 후지무라의 무식을 폭로하기에 주력하엿다。

이갓흔 그들 두사람의 긔세를 꺽거노아야만 교무통제가 잘되여 나아갈것갓흔 나의주관의작란이엿다

이리하야 삼대사는 이대사(二對四)로 단연 압도적 리―드를 가지게되자 신참병(新參兵)이엿든 종호군도 제법 청년교육가로서 내여노와 그다지 못그럽지안흘만한 긔술(技術)이 차츰차츰 발휘되여나갓다

종호와내가 K소학의 한직업장소에서 지내는동안 비록 내가 직권적으로는 그에게 어른이엿스나 퇴근한뒤에는 숭허물업는 다만한개의 벗에지나지안헛다。

종호가 K소학에 취임한지 일년이지난뒤에 나는 엇던상점의로 교원을 그만두고 K소학을 뛰여나왓지만 그뒤에도 종호군과의 접촉은 여전히마찬가지엿섯고 오히려 더갓가워진것갓흔 새로운 감정을 늣기곤햇다。

그리하야 종호는 서슴지안코 술도사내고 차도사내고 극장 사진관도 각금안내를 해준다 어떤때는 그가우리집에와서 나와가려 자기도하고 또 엇던때는 내가 그의집에가서 자기도햇다

이러는동안 나는 조곰도 숙인업는 종호군의 그림자를 완전히 그리라면 그릴수잇슬만한 자신이서게되고 거이 백파―센트에 갓가울만큼 그의 성격의 세밀한 내부에까지 뛰여들어가볼수잇게되엿다。

「……왜 중신하나 해주지안허……」

삼십전후인 그인마큼 때로는 인생의 고독이나 성적고민을늣기엿든지 솜씨이 내허리를 꼭 질르는것은 엇던때 나와가려 길가다가 갑금 젊은 계집애(그것은 대개가 내친구의 누이동생이나 그러치안흐면 옛날 내가 가르킨일이잇는 아이들)들에게서 내가 인사를 받는뒤에 흔히 그들이 지내가는 뒤ㅅ모양을 물그럼이 흘기면서 중얼거리는 원망비슷한 농담비슷한 발음이엿다。

『해주지 내말마잘듣는게 산가려자인것이 여자입세!』

나는 이러케 큰소리로 장담을 하는것이엿스나 실상은 다만종호군의 끄독이나 우울을 일시나마 위안해주겟다는 미적지근한 소극적인 우정에서 또그리고 조금이라도 종호자신이 자그자신에대한 절망이나 회념을 늣기지안토록 하기위한 위로에지나지안는것이엿지 참으로 적극적으로 그를위하야 중신애비노릇할 용기란 조곰도 솟아올르지안햇다。

거기에는 종호를 한벗(友)으로서 대하는데에잇어 청산하지안호면 안될 비우정적(非友情的)이랄가 또는범속(凡俗)한취미랄가 또는인습(因襲)이랄가를 가지고 잇섯스니 그것은 냉정한 립장에서 비판해볼때 너무도종호가 남자다운구석 누구지 탐스럽게역이고 대여들만한그런 신랑감으로서의 빗갈과냄새가들어나지 안햇든 까닭이라할것이다

첫재 종호는 키가적다 키가적거든 몸이나 뚱뚱해서 배ㅅ가죽이나내밀고 버틔는맛이나잇느냐하면 그러치도안타、죽북어처럼말넛다。거긔다카얼골까지못난편이엿다 코가 마리 쓰다밟은 끌미처럼 납작한데다가 눈은 아마 몬지나 틔끌어들어갈가보아그런지 상당이 깁피들어가박킨 옴펑눈이요 아래ㅅ턱이 마리 『고리라』처럼 불숙 내밀린데다가 이마마저 좁고 뾰롱어젓다、그리고 얼골엔 언제든지 지방(脂肪)이 지르르 흘르고 보기흉한 화농성(化膿性) 여드름이 군데군데 깔리어 얼골을 망처노앗다。

★葡萄의가을★

一演劇時評一 創作戱曲振興을위하야 ❶

柳致眞

最近·우리新劇樹立에 잇서서 創作劇의 必要를 나는 機會잇는대로 持說해왓섯다.

내가 創作劇을 要求하는 理由는 첫재 飜譯劇의過食은 우리俳優의演技를 망케가는것과 둘재로는

新劇 과거幾年을두고 잇는 現在의朝鮮劇壇의 處女地는 創作劇의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도저히廣汎한 範圍에서 開拓해낼수업다는것을 말하얏다.

그러나 以上의두가지理由는말하자면 傍系的理由이오 우리新劇樹立을위하야 어째도 創作劇의産出을 꾀하지안흐면 안된다는根本的理由는 따로잇다. 그것은 두말할것도업시 우리의劇作家의輩出을위해서다. 卽 서투르나마 우리의劇作物을上場하야 우리의劇作家를 養成하지안는以上 우리의演劇의向上은 고사하고 우리의劇그自體가存在할수업는까닭이다.

어느나라의 演劇運動을 보든지도 그나라 그時代를

代表 하는 演劇이라는것은 반드시 그나라 그時代의 演劇을代表할만한 劇作家가 남으로 말미아마 비로소 存在한것이다. 卽 엘리더베스朝의 演劇文化는 그時代가 나흔劇作家 쉑스피어를 除外하고는 存在할수업섯고 「아이스큐로스」「소포클레스」「유리피데스」等三大悲劇作家를 빼고서는 希臘劇을 論할수업는것과 가튼것이다.

이것이 卽내가 우리 新劇樹立의 基本工作에 잇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劇作家의 養成을 第一位에 두고 거기에 留意하지안흐면 안된다고 力說해나온 理由인것이다.

事實에잇서서 조선의

戱曲 水準이란것은 從來에 比하면 어느程度까지 上昇된 편이라고 나는 본다. 혹 조선文學을 論評하는者는 最近에 發表되는조선의 小說과詩는 從來의 作品에 比하야 그水準이 떠러짐을 말하는者가 잇다. 卽 現在에잇서서는 曙海, 憑虛, 稻香等의諸先輩에 比肩될 小說이적고 요한 相和等 그때의詩에 따를만한詩가 現在에는 업슴을 悲觀하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小說, 詩에對한是非論은 잠간割愛하고 戱曲에限하야서 여기에 論해본다면 確實히 戱曲만은 從來의 우리의 諸先輩의 作品에 比하야그 「레벨」이 요즘上昇하얏스면 하얏지 떠러지지안헛슴을 나는論斷할수잇다.

卽 劇作方面의 우리의

先輩 로써 尹白南 金永八 洪露雀 朴春岡 李萬植 等 諸氏의 敎示를 우리는 받은바만타. 그러나 그들 先輩의 作品으로 最近의 當選作品인 李曙鄕의「堤防을넘으랴」韓泰泉의「토성낭」에 따를만한 作品이잇는가 나는 疑心한다. 이러케 疑心하는것은 혹 나의 專斷의 탓인지도 모르겟다. 그러타면 多幸이다 그러나 대단 황송한소리지마는 내가본 限에서는 以上의 當選作에 따를만한 作品을 나는 從來의先輩의 作品에서 아즉 發見치못하얏다.

이와가티 조선의 戱曲의 質은 조금向上하면서잇다. 그리하야

最近 까지는 戱曲에對한一般的關心과留意도컷섯다. 그런듯것이이동안(昨年부터今年)에 잇서서는 이戱曲에 對한熱이 文壇的으로 차츰低下하야 가는것갓다. 每年二十餘篇식發表되어오든 戱曲이 最近(昨年今年)에와서는 열조구랑으로도 못다헤아릴만한 少數에 끄첫다.

李無影氏의 입을 빌리면「近年까지는 雜誌編輯에 新人의戱曲投稿가 만헛섯다. 그러나 最近에와서는 한篇도업다」는 것이다. 이現象은 무엇으로說明할것이며 어듸서 起因되는것일까? 量的으로의 減少가實的으로의

萎衰 를반드시말하는바는 아니겟지마는 이대로간다면 明年쯤은 印刷物을 通해서나마 한篇의戱曲도 구경할수업지는 안흘까념려된다.

이러케 戱曲熱이 차차衰退되어가는데 對해서 그理由로서或者는 이러케 말한다

「만일조선의新劇을 질머지고잇는그리고文壇과 가장가까히잇는 劇藝術硏究會에서 飜譯劇에만留意하지말고 좀더直接으로 文壇과 짜고 創作劇의振興을꾀하야주엇더면이지경으로까지는 創作物의衰退를 招來하지는안헛슬것이…」

卽 이말을約言하면 從來로 劇藝術硏究會가 飜譯劇에만 留意하엿기때문에

一時 에重視하려든 創作劇이 크지못하고 다시萎縮해버렷다는것이다. 筆者는 劇藝術硏究會의一員으로서 이말에對해서 一理를認定한다.

그러나 從來劇藝術硏究會의飜譯劇偏重은 決코 創作劇의 根本的蔑視에서 온것이아니오 創作劇振興 혹은培養을위한 한手段으로써 飜譯劇을 採用한것이다. 卽創作劇을나키위한 飜譯劇의上場이엇다. 어듸까지라도 創作劇이主이엿다.

古建物巡禮(17) 里門大臣舊邸 泰和館

湖岩

名公巨卿의 출입가 거의다 업서지고 말은 오늘에 와서 新築式 大邸宅으로 泰和館가튼것이 남아잇슴은 차라리 드믄일이라 한다할것이다.

勿論이집은 主人이여럿

박귀는동안에 重修도 여러번 하엿겟고 또그建物의 年齡도 그리오랜것이 아니지만 古建物을 紹介함에 잇서서 前日公卿의 남아잇는 邸宅으로서의 빼여버릴수업다 現今 이泰和館은 監理敎派의 女子敎育機關이 되어잇스나 시방부터 한九十年前에는 里門안大臣으로 이름놉든 金興根이 이집에 잇섯다 그의相貌는 兩眉間이 넓은것이 特徵이며 性行에 잇서서는 直言을 잘하고 豪膽이 대단하야 少時부터

어머님命을 拒逆한일이

업섯다 다만 그가愛酒癖이 잇서 술마시기를 조화함새 어머님은 매양그의健康을 念慮하야 飮酒하라고勸하더니 一日은 도야지오줌통세個를 가저다가 하나는 燒酒를 담고 하나는 藥酒를 담고 또하나는 濁酒를 담어 나란히늘어두니 여러時間을 지내매 燒酒담은 오줌통은 차차얇어저 畢竟 터지고 말엇스며 藥酒담은 오줌통은 엷어지기만하고 터지지는 안엇스며 濁酒담은 오줌통은 膨脹하여

젓슬뿐이오 열버지지는

안엇다 이에 그어머님이 興[illegible]하야 어머님의 꾸중을 봉하며 이뒤로 飮酒하지못하겟스면 燒酒를 마시라고 命하엿다 興根은 어머님의 命이라 平生에 濁酒 即 막걸리를 마시고 燒酒를 一切 입에 대인일이 업섯다한다 그가 晩年에 이르도록 飮酒하는 依然히 마시게된바 一日은 새벽에 일어나매 몹시 시장한지라 막걸리와 술국생각이 간절하나 寂寞함은 아즉도 잠을 깨지안엇슴으로 그네들의 일어나기를 苦待하다 못해서 맨發거바람으로 그옥이 里門近傍의 어느 막걸리집을 차저갓섯다 그리하야 술국한그릇에다 막걸리한사발을

마시고보니 시장햇든김

이라 아주맛이 훌륭하엿다 연겁허 몃사발을 끼울이매 배가 물늑해젓다 그런데 술갑을 주려하나 老人의手中에 一錢도가지지못햇슴으로 술장사 다려 일으되 내가現金이 업스니 집에 가서곳 보낼터이즉 그리알라고 [illegible] 술자시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새벽 마수거리라고 외상을 拒絶한다 그리하야 한편에서는 現金이 업다커니 한편에서는 現金을내라커니 서로 [illegible] 절문듯군하나이도래와서

점잔은이의 창피당하는

꼴을 보고 同情하여 老人의술갑을 대신물어주엇다 어때金老人은 너무고마워 젊은이의 姓名을 물엇드니 그의對答이 「저는 康風憲에 [illegible]놈이외다」라고 하엿다 金興根은 生來처음 막걸리집에 갓다가 봉변하게된바 이뺨을 免하게 해준절문이를 奇特히녁여 그後 몃칠을 두고 그의居住를 探聞하엿스나 康風憲을 아는이 업섯다 그러다가 一日은 下層社會의物情을 잘아는門客에게 康風憲을 물으니

그는껄껄우스며말하되

「[illegible] 아니요 失業하고노는것은 [illegible]에 후子가잇다하는데 어는 下層社會에서 康風憲이라는 말이외다마」고하엿다 金興根도 그제야깨닷고서 과연 그러겟다고 머리를 끄덕엿다 이로부터 搜索方法을 變更하야 그사람의 容貌와年齡과및衣服에依하야 長安市街로두루다니면서 마침내 그本人을 차저다가 後히賞賞을 주엇다한다 이는 里門안大臣金興根의 有名한 逸話이어니와 이집이 里門안大臣家로부터 [illegible]金氏의 順和宮이

되엿든때도 잇섯스며그

後에 李完用邸가되엇더니 一轉하야 旅館이되고 料理店이되엇다 한十數年前까지 泰和館 또는明月館支店으로 잇섯다 己未事件에도 이泰和館이 깁흔 關係를가젓슴은 一般人이 다아는바지만 오늘날은 女子敎育機關이 되고말엇다.

納凉隨筆集 (7)

『貧隊』戰線에 異狀업나 —元山海水浴場에서—

朴慶浩

모처럼 차자온 元山엔 반갑지안흔 소낙비가 쏘다진다. 雨中에 避暑客이야말로 不遇人生의 一例이라 허는수업시

旅 裝을 客舍에풀고 빠나나 한개를먹고 한봉음을 마신후 장판우에 누엇스니 此亦是 丈夫의生活이라 自興에게워 一旬의詩를 生覺하노라니 난대업는아우성소리가 鼓膜을 振動한다. 이게 웬일인고 두눈을번적뜨니 連日주렷던 貧隊(빈대)軍의 白晝襲擊이라 모주리 斬壞를 기어니와 亡國戰을 開始하니 其勢 자못 猛烈하다 그러나 못솔리니는 黑面將軍의 에다오피아軍을 무서워할法하되 赤面多足의 貧隊軍을 두려워할 내가아니다 내일죽이 戰術을다가 末奈公의 稱號를 享受한지 三十有餘年이지라 皮膚의 直下에는 剛鐵가튼 骨壁이

潛 在한것을 아지못하는 貧隊軍 함부로 덤비다. 가는 반드시 니빨이부러저서 너머질것이다 齒牙는 貧隊의 唯一한 武器이라 내일죽이 貧隊陣中에 齒科醫가 잇단말을 듯지못하엿스니 齒牙가傷한놈은 自然히 永久武裝解除가 될것이아니냐 貧隊軍의 勇將 數十名이 이와가티 慘憺하게 敗北를 하고나니 貧隊戰線에 異常이 全無하다 비는나린다 傷處는가렵다 隣方WC國으로부터 發散되는 毒瓦斯는 戰勝將軍의 壯氣를 一層鼓吹한다 마츰내 同宿K君과가티 雨中에

明 沙十里를 往訪하기로 하고 俗稱 다구시라는 잡아타고 그윽한東海를 바라보면서 松林사이로 달리는맛이란 天國行아니면 地上樂園이리라 그러나 내가合에 心臟이 뛰는것을보니 天國行이아닌것만은 多幸으로여겨 스사로 欣然함을 禁하지못할際 이른곳은 明沙十里라 爲先 入口에 커다란 揭示板이 잇서 가라사대 一、猥褻한 衣服을입고 드러오지말것 一、海水浴을 하려면반드시 水泳服을 着用할것 等等이다 일죽이 내가 上海에서 公園에「華人免進」이라고 쓴 標木을 본일이잇거니와 朝鮮에서는 이런類의 揭示를 흔히본적이 업는지라 아마도 이안에는

王 族이아니면 貴族의別莊이잇나부다하고 저윽히 조선사람이 드러갓더니 이곳이 어쩐바 西洋人의避暑地이다 여기저기 [illegible] 잇는 [illegible] 소리 레코드소리가 雨中이라도 分明히 들린다 牛乳鷄卵을常食하는 그들이니 末奈公이 잇을理업고黃金國의國民이라 貧隊의 侵犯을바를理 업을테니 戰爭도업고 折衝의 亂도업을것이니 오직平和의 웃음소리 音樂소리뿐일게라

明沙十里에 海棠花는 어대잇는고! 海棠花한송이를 꺽거다가戰勝의 記念品을 삼으려햇더니海棠花는 자최도업고 波濤에밀려온 조개껍질과 海草뿌리지들만이 비마즌모래우에 함부로 잡바졋슬뿐이오 惡水로 떠못는비는 오히려

海 棠花를 차저 헤매는 우리의옷을 적실뿐이라 猥褻한 衣服을입고는 드러오지못하는 地域인지라 或時 쫏겨나지나 안흘가하고運轉手를 催促하야 一氣에이地域을 버서나 貧隊의戰線을 向하니 비로소 安心하고 숨을쉬엇다 貧隊戰線은 아직도 異狀업섯다

隨想 나의文學前 (中)

許俊

옴크라트렷다가는 뛴다.

그럼으로 가끔 나는 어느것이 뛰는것이지 어느것이 옴크라트리는것이지 分間키어려운 瞬間이 만타 이것만體得하면 나는 내文學의길에서 太半은 고만이라하여도 조흘것갓다. 哲學的道蓄도 나는부럽지안코 普遍되科學的知識도 그것에比하면 要緊한것이것가지안타.

내게는 내가 [illegible]라불으는바 그러한눈이 必要할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눈은 追求에서만 밝어지는것이다

아! 그러나 밝어지려하는 사람의慾心과 努力에는 限이업다 그리고 眞實로 여기에 文學人의衆因的苦悶이 숨어잇는것이다

先天的稟質性을 북그려워하지안어도 조흘것과가티 天才를바뎌다하드리도 거기에는 眞實로 아모런 자랑도 업서야할것이다 모다 한 偶然이오 모다 내가 아지못하는바이다. 오즉 그것은 남이가지고십허하는者別일뿐이다

그러나 生活이 나를끄는興味는 亦是 天才속에 잇슴이다 내게 天才를만드는것―다시말하면 내生活과일에 創造的意味를주는것.

그리고 내가 이天才를나키위하야는 恒常文學과 結婚하여야하겟고 恒常 文學을 思索하여야하겟고잇서야할것이다

그럼으로 生活하여서 恒常내손을끌고가는이는 이文學이다 나는 이를위하야 眞實하여야할것이다

精神的眞實―엑쓰러저 精神에 眞實이오다 그러나 眞實은아니다 文學人은 이眞實을 만들기위하야 化學에서와 가티 亦是 複雜한元素를化合시키지만 實相 그眞空은 分裂이오 分裂의極致作用일따름이다

그는 恒常悲劇의實驗者이다 그러나 그들의見學者는 그嘗속에는 悲劇의微妙한 化合作用이 잘보이지안흠으로 때로는 그實驗者를 變態的이라고도하고 病的이라고도한다

그는 本能的으로 그深淵에서 나오려고한다. 그러나 同時에보다더깁흔 深淵을파지안코는 못배긴다. 보다 더깁흔深淵을 파기위하야 다시말하면 그는 그深蘇를 재이기위하야 나오는것이다.

그러나 아모리 파들어간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藝術家를窒息시킬 아모런 實한 瓦斯도업다 그는 苦悶할것이다 그러나 다시蘇生한다.

이것을 나는 孤獨의深淵이라 한다.

머-큰리알파보이지만 當到하면 어미 生物은 그알흔 꺼저간다. 가거서 다시 앞어보이는것처럼생각되는곳까지 간다 그러나 또 보이지안는다 이러하아 끗이 업을것이다

아모런Denouement도업는 한無限한Complication이야말로創造家의 全內面生活이다 그는惡劇의 悲劇을사는者이다

絶對의 素質가잇스니 常識이 그러하다

藝術家가 常識을나치안키위하야서는 惡魔의助力까지가 必要하엿다 文學人이쓰는 惡魔라는말은 이리하여서 난것이아닌가

何如間常識은 그러케 [illegible]한것이오 질긴것이다 그러나 百萬人의神도 한惡魔에게는 敵手가아니엇다

No pas se refroidi. No pas se lasser.

아! 그러나 이讀集 이讀者가나아(惡)얏든것이다

流産된文藝家協會

月前에 어느文藝座談會席上에서 文藝家協會를組織하자는 提議가 멧멧文人에게서 나와서 거의異口同聲으로 만흔 賛同이잇섯슴으로 그뒤에 곳 實行委員까지 뽑아서 規約을起草하고 會員資格을 審査하여서 未久에 文藝家協會가 正式으로 낫타나리라는것을 某文藝雜誌는『報告』하엿다 그러나 그뒤에 探報子의 探聞한바에 依하면 實行委員들은 그동안에 다시 文藝家協會를 組織할必要가 업다고해서 모다 흐러지고 一時에 物議되든 文藝家協會는 胚胎도 完全히못한채 流産된모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文藝家協會를組織하자고하든 그座談會의記錄을본다면 그때에 모다 賛同을하엿다는것은 대체로 어듸서 由來하엿스며 또한 그러케 賛同을 바든 文藝家協會가 流産이되게된것은 무슨理由일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現下우리文壇에는 아모 새로운 文學的主張도업고 따라서 文學的流派도 생기지안는 그야말로 沈滯沈滯한現象에서 그한개의 反動으로 무슨 會合이나 그들을 만드러보앗스면하는 衝動이 一般的으로 文人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고잇다는것을 볼수잇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곳 文藝家協會라는 組織形態로 낫타날때에는 極히 限定된 限界性이 잇는것이니 그것은 文人의親睦이니 무엇이니하는 觀念的인것外에 이組織性能은 出版者本家에對한 作家의 生活擁護 다시말하면 原稿의協定價인것이다. 그러나 朝鮮의現狀으로보아서는 文筆이 完全히職業化하지 못한때문에 原稿協定이란 問題가되지안는것이며 따라서 失敗의 前轍만 보이는때문에 이것의 存在理由는 極히稀薄한것이다.

그러므로 이런會合은 一部文人들의 情熱이 徒勞에 歸할 意味하는것밧게 업다는것이 아닐가

(如水)

歸鄉文藝

民謠採集記 —慶北地方을中心으로— 2

城大文學部 金思燁

面所人사의리들의 잔소리가 功을奏하야 논보다 正條植이 오며해前만해도 흔이 볼수잇든 無條的移秧은 볼수업다

쪽날쪽날 굴러가는 우리車는 大新聞을 떠난지 얼마안되여 바로 便車窓에안저잇는 어떤神君인듯한 차림을한 수몸남지한나희의 겸의태태하고 질죽질죽한업굴을 가진

靑年 이 「金烏山! 金烏山!」하고 그압해안즌老婆에게 注意를喚起식힌다

果然 金烏山의 눕흔 雄姿가 車窓에서 보인다 그러나 오늘은날세가 흐리여 이마 리까지는 보이지안코 日氣關係로검푸르게 옷욱 솟아 점잔은 선풍老人의 閑暇히 서서 잇는듯한늣김을 준다 金泉은에서는 東南約一里만 나가면 求景할수잇는山이 車窓에서 바라보자면 錦尾嶺을 지나서야 完全히 볼수잇다.

金烏山과함께 우리는 麗末孤忠 吉再先生을 追慕치안흘수업스며 그와同時에 吉再先生을외신 金烏書院을 聯想치안흘수업다

날세關係로 山의姿態를 다볼수는 업섯스나 車內에서도 朝鮮사람들은 大槪그山이 보이지안을때까지 내여다보고서로 첫거린다.

나는그山아래이슬

祠堂 을그려보고 吉再先生을 欽慕하며 그리고 그山下에오늘도 先生의德을 거울삼아 사라가는 사람들의 生活을生覺해보앗다.

十一時五分前 若木驛에 到着되엿다.

보잘것업는 조고마한村이다. 이번코-쓰에 고맙게便利를 보아주려고 同行을하게된 柳東善君과 各己존가방울들고 車에나려서 驛을나왓다

·驛압헤잇는 酒幕집에 짐을맛기고 石積面을 向해거러갓다 漆谷郡에서 石積、仁同兩面은 아직도 兩班들이 行勢를하며 封建的遺風이 多分히남어잇서 比較的新文化의 洗禮를밧지안흔곳인것과 더욱이 石積面에는 同行한柳君의妹家가잇는것으로 우리의 今般第一次코-쓰는 該兩面을中心으로 民謠의

採集 을 하기로되여잇섯다

若木서 한一里假量 東行하야 보기에퍽[illegible] 뎐과사이에 한四五十戶쯤되는 村에 이르럿스니 이곳이 石積面浦南洞(俗稱개냄이)이라한다 우리는 이곳에 柳君妹家가잇고 또한우리들의 根據地이기도하야 마을을 드러가니 첫재 눈에띄우는것이 洞里에 岩石이만흔것이다 그래서 石積이니 石田(돌밧)이니하고 부른는지는모르겟스나 집집이담은 다 돌을고와서하고 길도 돌을까거서 平坦케만드럿다 洞里에서도 좀외따로잇는 柳君妹氏家를차저가니 마츰柳氏가집에잇다가 반가히마저준다 비록 草家이나 이런시골洞里에서는어더보기어려운 瀟洒한집이다 이곳까지 차저온뜻을 말하니 柳氏는웃으며 그런노래를 모어다 무엇하느냐고못는다 아라듯기쉽도록 [illegible]한뒤에 그곳에서

點心 을먹고 即時그마을압헤잇는 面所를 찾기로 하엿다.

面所에가니 마츰面長은 出張가고업고 會計係某氏에게 차자온뜻을말하니 매우반가워 하며 여러가지 石積面에對하야 說明을하여준다. 그곳에서 各洞里名과 區長名을뭇고 各區長에게 紹介狀을 어더가지고 浦南洞서각가운 浦南二區를 차저갓다.

浦南二區는 浦南洞을 끼고잇는 東便쪽山을 넘어서니보인다 浦南洞보담 戶數는좀적을는지 모르나 部落이한곳에 어울리어잇서 初客의눈에 퍽平和함과 多情한맛을준다. 마을을 드러가서 區長집을무르니 들에나가고 업다고한다. 그저兒孩를다리고 그가간들을 차즈러두도라나오니 비집이다들에 일하러나가고 집여잇다 마을압 큰나무밋

陰地 에 洞里兒孩들이더러놀고잇고 집집마당에는 암닭이 새로깐병아리를 더리고 모이를차저 徘徊하고잇고 삽작문으그늘에 개들이낫잠을자고잇다 洞里를나와 山비탈[illegible] 는 男女老少가 모다 모여서 일을하고잇다 男子들은 소를먹이고 안악네들은 밧헤서 기심을매고잇고 兒孩는 나물을캐고도 잇다 압혀가는 民謠의뒤를따라 얼마쯤가다가 보니 논에 물을떠넛코 잇는 사람을가르키면서 저이가 區長이요한다

勝劇한人事를 주고바든뒤에 圖에서 가지고온紹介狀을보이니 서手로紹介를해준다

「에이고 이더운데 평감습니다」

나는簡單히 民謠라는것이 엇던것인가를 미리써가지고 온標本될만한

民謠 를보인後 우리는 民謠를 採集하는가왜를말하고 다음에 洞里에드러가보니 모다나가고 들에가고업서 直接찾저가서 聽取할수업음을말하고 受苦로운일이나 區長이 저녁 洞里에서 노래하는이를 불러다가 벗겨주기를附托하니 順順히應諾한다. 用紙와 採集時에對한 注意事項을적은것과 民謠의 標本二枚를주고 二三日後 다시 차즈러오기를말하고 다음洞里로 발을옴겻다

夏期歸鄉文藝 投稿歡迎

定規

1、隨筆、日記、紀行、實話
2、專門學校學生程度以上
3、四百字原稿紙十枚以內
4、寫眞添付도無妨

[illegible]

朝鮮日報社學藝部

人民의自由를保障하는 『大憲章』署名室競賣 —이것도時勢所致인가?

【런던發聯合郵信】『러-니메-드』의『마그나·카르타島』이라면 一二一五年一月 英國王『존』이『人民의 自由를 保障하는 英國最初의 法規』『마그나·칼타』(大憲章)에 署名한곳으로서 有名한 史蹟이 잇는데 이섬이 最近 島上의建物과함께『런던』서 競賣에 붓치게되엿다 競賣는 八千磅을 부르는데서 始作해서 점점 올리가 맛침내一萬二千五百磅으로 同島는『뭐-스텐-』州議員 下院議員『F·J·E·[illegible]』氏의 손으로 도라갓다『마그나·칼타島』에는 [illegible]

카-」島上에는 自然과 砂岩으로 建築된 中世風의 破風窓이 잇는 美麗한 建物이다. 그中의 一室인『카-타!·룸』이라고 하는것이『존』王이 貴族들을 압해 세우고 大憲章에 署名한 房인데 房에는 署名立會人들의 紋章이 鮮明한 甲胄로 裝飾되여잇다. 그리고 이建物은 五百年乃至七百年을 지낫다고하는 오래인『스텐드·그라스』가 박혀잇는 [illegible] 또한庭園은 그야말로『로만틱』하고 美麗해서 여러가지의 珍奇한 樹木이심어잇는것이다

新刊紹介

◆農村通信 第六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長老會總會農村部發行 振替京城一九六四一番 定價一部五錢

◆同窓會報 第八號 東京市神田區駿河臺 明治大學內 明治大學朝鮮留學生同窓會發行 (非賣品)

『사베-트』의 大地球儀

【『모스코바』發聯合郵信】最近『모스코바』의 地理學會에서 直徑十五『피-트』나되는 大地球儀가 製作되엿다. 球面에는 世界各國의 國境, 鐵道는勿論, 航路로부터 空路까지 浮彫되여 잇다. 地球儀의 內部에는 電燈이켜잇고 外部에는 投光器가設備되여잇스며 電飾効果는 훌륭한 成績을 나타내엿다. 그리고 電氣裝置로해서 地球儀는 一時間에 六廻轉한다고한다.

海外短信一束

『메-텔링크』新著發表

【니-스發聯合郵信】名著『푸른새』로서 世界에알려진 白耳義의伯爵 모-리스·메-텔링크氏는 今秋巴里에서 新著를 公表하게되엿다. 新著의題名은『프린세스·이사벨』. 目下『메-텔링크』氏는 佛蘭西 니-스의 別莊에避暑中 著著出版의準備를 進捗식히고잇는데『프린세스·이사벨』은 巴里藝術界에서 今秋의最大收穫의하나이라고 지금부터評判이놉다고한다.

黑風 【92】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성담 (偵探) 3

「저는 녀자라도 고적을 늣기는때가 만습니다 선생님은 보살의 후신이게지오 사내로서 고적을 모르신다니」

하는 순옥의말은 완전히 신사적 교제(紳士的交際)에서 벗어나서 붉은 등잔 푸른술 새이의 그것과 가티 되야 바렷다

왕한은 순옥의 말에 대하야 다소의 불쾌를 늣겻스나 순옥의 행동이 엇더하든지 그대지 관심할 필요가 업섯스므로 도로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엿다

「나는 사랑에대한 경험이라고는 별로 업습니다 그리하야 사랑에대한 감정까지 말라부텃는지도 모르겟습니다 순옥씨 가튼 미인이 때때로 일깨어 주신다면 가을이되얏든 사랑의감정이 다시 봄이 될는지도 모르겟지오」

하고 왕한은 우섯다

「제가 미인이 무슨 미인이야요 제가만일 선생님의 사랑을 바들만한 자격을 가젓다면 영광이겟지오 그러나 선생님이 저에게대하야 고적을 모르신다고 말슴한것은 저에게대한 감정이 개똥줄만치도 땃뜻한 기운이 업는것을 징명하는 것입니다 녀자를대하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이에 잇다면 그녀자를 대하야 나는 고적을 모른다고 어롭보다 찬말을 하실수는 업슬것입니다 웅변집(雄辯集)을 떠드러노코 십만독을 한대도 그러한 구절은 차저낼수가업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런말슴을 듯게되는것은 견댈수업는 불행입니다」

말을맛친 순옥의 입설은 가버웁게 움직이고 순옥의 눈에는 눈물의흔적이 어리엇다 순옥의말은 책망인듯도 하고 원망인듯도하고 애원인듯도 하야서 어느점으로 보든지 처음맛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업는 이상한 말이엇다 순옥의 말과 표정은 가슴깁히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벼운 배척을 밧는때에만 잇슬수잇는 현상이오 그러치 아니하면 천한 기생이 간교한 수단으로 처음보는 사내를 롱락하랴고 거짓우미는 그것과 흡사하얏다

왕한은 순옥의 언동이 정도를 지나치게 이상한듯 하야서 적지안한 의심과 불쾌를 늣겻스나 한편으로는 모든것을 해방한 녀자가 되야서 그러한가 하는 생각도 잇고 왕한이도 사내이니만치 그러한 리지적판단(理智的判斷)보다도 직감적(情感的)으로 순옥의아름다움에 끌리는 힘이 만하얏다

왕한은 문득 순옥에게대한 성원의말을 생각하얏다 그리하야 다시 순옥의행동을 의심하게 되얏다 순옥의 언동은 확실히 왕한에게 사랑을 요구한것인데 단정한 녀자로서는 할수가 업는일일뿐 아니라 허물며 동지요 애인인 성원의 사랑을 바드면서 그가 소개한남자에게 조금도 거리낌이 업시 사랑을 요구하는것이 어대로보든지 이상하얏다

「순옥씨는 사랑하는 남자가업서요?」

하는 왕한은 성원을 의미하고 뭇는말이엇다

「업습니다 남자동지가 만하니만치 동지로서야 사랑하지안는사람이 업겟지오 그러나진정한 애인은 업습니다 동지와 애인이라는것은 다른것이니까요 조금주제넘은 말슴일는지 모르지마는 아직 사랑할만한 남자를 발견하지못하얏습니다 만일 사모 할만한 남자를 보앗다면 선생님 한분뿐이겟지오」

하고 얼골빗을 고친다

「그러면 남자로서 순옥씨를 사랑하는 사람은 잇습니까」

「사랑하라는 사람은 잇슬는지 모르지마는 사랑하는 사람은 업습니다 외쪽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요」

「송성원씨를 잘아시겟지오」

「알구말구요」

「그저 알기만 하서요」

「뭇는말슴이 이상합니다 사랑하느냐 말슴이겟지요 그러치안허도 남에게 그런의심을 더러밧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중에 제일 호감을가지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사랑은……」

하고 말끗을 마지안는다

京城府敦義洞一四五・電話光化門長六四・八六二・一五〇九番

下半期金利觀測
②…利下?不可能?

그러면 「인푸레와 利下가 어느것이 可能性이 잇느냐하면 勿論利下일것이다. 「財界가 不景氣이면 金利가 떠러지는것이 當然하다」라고하야 利下가먼저 行할것이다. 그리고 利下를 以上 行할수업게되어 不景氣가 深刻해짐에 及하야 비로소 「인푸레가 擴頭할것이 아닌가?」

(一) 利息이 利潤中에서 支拂되는것이오 (二) 債權이 過剩이며 國民의 蓄積運動이 旺盛되며 (三) 不景氣는 進行하는터로 一般에 消費力이 減退하고 企業이 不振케되어 企業利潤이 低下하는것인데 以上의 豫測도 全然不當치는 안홀것이다.

過去에잇서서는 不景氣이면 一方에는 物價이 低下하고 他方에는 金利가 低下하야 物價의 下落과 相俟하야 輸出貿易이 旺盛하엿든것이다 그럼으로 消費力의 增大로 企業過剩이나 債權過大나 蓄積過度도 한꺼번에 緩和되엇스나 貿易機構가 世界的으로 變化한 今日에잇서서는 그러한 일이 업게되엇다 따라 宿減이라든가 인플레와가튼 非常手段을 講究치안흐면 안되게되엇다 不景氣를 自然히 好景氣로 誘導하는 資本主義에 特有한 事實이 업서지엇슴은 財界의 豫測上으로보는가 크게考慮할바이다

×

그는 如何間 今日의 金利水準을보면 日銀金利와 預金利率과는 從前은 相當한 間隔이 잇섯는데 最近은 그間隔이 縮少되어 오히려 反對로까지 되어잇다 따라 이以上 日銀이 利下하지안어도 市中銀行은 預金利子를 引下할 情勢에잇다 하물며 日銀의 利下가 잇슴에잇서서랴 近來는 市中銀行이 一般으로 證券利殖의 低下로 利鞘가 減少하야 困難을 방고잇슴으로 利下를 바라고잇다 金利의 低下는 弱小의 債權者에게는 不利하야도 利權獲得을 中心으로하고잇는 金融資本家에게는 반드시 問題가되지는 안는다 利下에依한 損害는 弱小債權者、預金者、金錢信託者에게 轉嫁되기때문이다 金融資本時代에잇서서 利下가 反對되지안는 理由는 여긔에잇다。 債權宿減、又는大인플레라하면 기가 올나 反對하는 金融資本家가 利下에는 그리 反對치 안홈은 一考할 必要가잇다

×

低金利의 擴張의 事實上 反對者는 預金者이다 預金者가 低金利의 限界的 理由도 實은 여긔에 잇는것이다 高金利의 上限은 資金需要者인 企業者가 이를 決定하고 低金利의 下限은 資金의 供給者인 預金者가 이를 決定하는것이다 金利라는것은 勿論 一個의 市勢이고 매잇슴으로 需給關係로 決定된다고는 할지나 株價나 物價처럼 需要와 供給이 同一한 힘으로 相對的하는것이아니고 金利가 上限에 接近함을따라 需要者의 金利決定力이 크게되고 金利가 下限에 接近함을 따라 供給者의 金利決定力이 크게될것은 一考할바이다 여긔에 理論을 述할 餘白이 업슴으로 려잇든나 市勢決定에 對하야 이以上 더云謂하지안으나 如何間 低金利의 限界者가 預金者이엇슴은 明白한일이다 그런데 世間은 不景氣하야 預金의 安全한 債券가업다 預金을 꺼내어 公債를 사지라도 公債의 利回가 낫부고 公債市勢의 地位가 高騰으로 시원치안케 생각한다 따라 利下할지라도 預金은 그저 減少하지안홀것이다 따라 預金의 點으로 보아도 한번더 利下할 可能性이 조곰잇슬것이다

×

勿論 預金이라는것은 그나라의 經濟力의 反映이고 그國民의 損益캘런스의 反映임으로 不景氣로 損益캘런스가 조치안은以上 預金이 只今까지와가티 急激히 增加치 안흘것도 事實이다 昭和七年부터 九年에 亘하야서의 預金의 激增이 値上利益의 急激에依한 國民의 損益캘런스의 好化에 依하는바 컷슴을 보드래도 알것이다 昭和四、五、六年에잇서서 預金이 激減한것은 値下와 利下에依한 國民損益캘런스의 急惡化때문이 아니엇든가 赤字公債가 도라 預金이 增加하는 擬制되어 預金이 增加하는 程度그리될것이업다 預金의 增減을 支配하는 根本的動因은 國民의 損益캘런스의 如何이다 그런데 今後는 不景氣가되어 國民의 損益캘런스는 惡化하는수밧게업슬터임으로 이點으로 보아도 預金의大勢가 急增傾向에 잇지안흠은 明白하다 따라 資金의 供給力도 激增치안흘 것이라 金利는 바랄수업다 債權이 過剩하고 利潤率이 低下하고도 財界가 好轉하고 不況하야 容易히 그것이 蘇生되지못하는 永續性이잇슴은 事實이나 定期預金利率이 三分을 割하는 點으로보아 今回의 또金利에는 深刻한 低金利는 預金者의 關係로보아 바랄수업는일이 안일가? (終)

農林省朝鮮內買上米直送
最近品不足狀態의 朝鮮需給事情無視
朝鮮內米拂下가 必要한때에 穀商과消費者를威脅

農林省朝鮮內買上米五萬石의 日本內地直送에 關하야는 米穀統制政策에 依한 長期貯藏을 加味한 買上米는 當然히 朝鮮內에서 拂下할것임을 不拘하고 이것을 日本內地에 直送함은 朝鮮內米穀業者를 威脅할뿐만아니라 最近品不足狀態에잇는 朝鮮內의 需給事情을 無視하는것이라는 非難의소리가 노파진다

"買上、拂下의陳情"
朝鮮內에서實行하라
◇…穀聯이農林省、總督에게

別項과가튼 農林省에서 朝鮮內買上米를 日本內地에 直送하엿슴에 對하야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二日 農林大臣과 總督에 陳情書를 보내다고한다

△陳情書【農林大臣】

最者朝鮮內에서 買上한 朝鮮米中 이번 八年產米五萬石을 直接 日本內地에 移送하엿다고 하는바 이것은 지난 昭和八年八月本會의 決議即朝鮮內에서 買上한 朝鮮米는 반드시 朝鮮內에서 拂下하여달라고한 要望主旨와 反對로 朝鮮穀物業界에 多大한 衝動과 威脅을 줄뿐만아니라 產地品不足으로 차라리 日本內地로부터 逆移入이 되는 需給의 趨調로보아서 刻下의 實情에 逆行하는感이 잇다 이에對하야 顧컨대 朝鮮米穀界의 實勢에對하야 朝鮮의 買上及拂下는 반드시 朝鮮內에서 實行하기를 바라는바이다

그리고 朝鮮總督에對하야는 右要旨에依하야 農林當局에 向하야 斡旋方을 陳情하엿다고한다

政府所持米 不遠에賣却
◇…四十萬石程度로

【東京電話聯合】 朝鮮米五萬石의 日本內地移送에 關하야 市場方面에서는 朝鮮米賣却의 前提이라고 傳하는데 農林省은 이것을 否定하고 朝鮮米移送은 保管의 事情으로因한것이며 目下賣却의 意向이업다고 한다 그러나 最近의 米價는 五月十五日의 米穀統制委員會에서 整理賣却하라고 決定한 二百萬石中이미 入札 또는 隨時百六十萬石을 賣却하엿슴에 不拘하고 正米는 强調를 呈하야 民間在米의 激減關係가 窮乏이 深刻함으로 不遠에 百萬石中의 殘餘四十萬石에 對하야 第四回賣却을 實施할것으로 보임으로 本件은 期待된다

帝國、東洋生保 合同交涉進捗

【電通東京電話】 帝國生命保險會社와 東洋生命保險會社間에는 某有力者를 通하야 昨年以來合同談이 進行되든바 最近에 交涉은 進捗하야 東洋生命의 大株主인 第一銀行에서는 適當한 條件이면 合同에 對하야 異論이 업고 또 監督官廳인 商工當局도 業界强化의 見地上 勿論 贊成케될것으로 보임으로 本合同談은 不遠間成立되리라고 期待된다

米穀取引所存廢 研究會正式設置
取引所改善存續?市場組織?
次議會前에決定意嚮

【東京電】 米穀統制政策의 强化에 伴하야 米穀取引所는 自然히 그影響을受하야 取引高가 減하는中임으로 그對策에 對하야 當業者로부터 要望도잇고 特히 米穀自治管理法案을 關繞코 米穀對策調査會에서는 附議決議를 하얏스며 政府에서도 議會에서 考慮를 明言하얏섯든바 最近에 至하야 具體策을 樹立할 形勢를 示키에 至한것이 注目된다 即今年五月에 當業者側으로부터의 要求에依하야 商工、農林兩當局은 官民懇談會의 形式으로써 數次會合한 結果 右懇談會를 正式의것으로하기로되어 米穀取引所制度研究會란 名稱下에 商工省商務局、農林省米穀局 東京、大阪 兩米穀取引所 三者의 首腦部 十三名으로서 委員會를 改組하고 三者로부터 各其資料를 提示하야 檢討해와다 그結果로서 最近에 研究項目의 範圍를

一、米穀取引所를 改善하야 이것을 存續할方策

二、米穀取引所에 代할 市場組織을 設할方針의 二點으로 局限하고 今後이方向에 沿하야 具體案을 研磨키로되엇다

勿論具體案如何로는 取引所買收、取引員의賠償等困難한問題가 利합으로 急速히具體案을得키는 困難하지만 何如間 本問題解決의途를 具體的으로 踏出한것이오 當局도 來議會까지에는 何等의 決定을 보리라는 意嚮으로 協議를 進行할態度를 示하고 잇슴으로 이研究의 今後審議進行狀態는 자못注目된다。

朝鮮은當然追隨
當分間形勢를靜觀
◇…朝取秋山常務理事談

米穀取引所問題에 對하야 官民研究會를 正式으로 設置케 된것은 當局이 米穀取引所에 對하야 認識을 갓고 眞實히 具體對策을 決定코저 하는것으로서 當業者로서는 조흔일이라하겟다。朝鮮內 米穀取引所로서는 取引所가 廢止될境遇에는 賠償을 할것等 東京大阪側과 가튼 步調를取하야 要望陳情할일이 잇슴으로 지금 새삼스럽게 떠들것은업고 東京 大阪等에서 具體案이 決定되면 朝鮮도 當然히 追隨케 될것이다 云云

米生產費의 委員會流會
最終的結論尙遼遠

外地米生產費調査會는 旣報와如히 七月二十二日부터 幹事會의 手에서 調査資料의 査閱再檢討를 進하고 二十二、三、四、五、七、九、三十日과 一日의 八日間 朝鮮側 百三十一冊의 原簿檢討를 終了하고 이어서 審議分을 開始하고잇는데 이結果를 來八月五日頃의 幹事會에서 協議하고 다시 八日의 小委員會에 諮하기로 되엇는데 最終結論은 아즉 알수업는 狀況이며 依然遲遲한 進捗으로 結局暑休時期이며 豫算編成要務도잇슴으로 또 流會되리라는 觀測이 有力化한듯 하다

兩無盡의合倂
仁川과共濟가

共濟無盡株式會社와 開城無盡株式會社에서는 今年一月 買收合倂하야 同地에 支店을 設置하엿더니 그뒤 仁川無盡株式會社間에 合倂의말이잇서서 折衝을거듭한結果 八月一日京畿道廳에서 買收合倂의契約調印이 끗낫다고한다 如斯한 大會社와 中堅會社의 合同必要는 業界統制를爲하야 從來 識者에依하야 提唱되면서도 今日까지 그例를 보지 못하얏던것으로서 今回의 兩社態度는 業界의 注目을 惹起코 잇다한다

米日爲替少高

【京城一日發聯合】 一日의 米日爲替는 前日과 比較하면 賣二十九弗二十七仙으로 二仙高 買二十九弗二十四仙으로 二仙高

石油業法再檢討
關係省會議開催?

【東京電話聯合】 石油業法에 依한 六個月 貯油義務問題는 値上問題로 紛糾中임으로 商工省과 陸海軍、大藏省과의 間에 協議를 開하고 解決을 圖하얏는데 各省共히 各其 立場으로 一步도 讓步하지 안코 決裂에 瀕하얏슴으로 町田商相은 同問題를 政治的解決에 依하고저 意圖하고 一日의 閣議終了後 岡田首相、廣田外相、林陸相、大角海相에對하야 非公式으로 『石油業法은 實施에 當하야 더욱 檢討할 幾多의 事項이 殘在하야 無條件으로 六個月의 貯油義務를 石油業者에게 對하야 賦課케함은 相當히 無理이라고 認하니 이事業의 缺陷을 修正하는 一方 라이징크산、소코니 兩英米 트러스트의 問題도 急速히 解決하여야 할것으로 各省도 이에 協力하야 달라』고 陸海軍 大藏省에 讓步를 求하얏슴으로 近間 再次 關係省會議를 開하고 石油業法의 根本的再檢討를하며 各省의 妥協을 圖키로 되엇는데 結局 何等의 妥協案을 發見하고 이 問題의 解決을 볼模樣이라한다

貯銀湖南支店計畫

[illegible] 光州、木浦、群山의 三個所中에 一個所를 新設키로되엇다한다

各地米取賣買
七月中의狀況

朝鮮內 各地米穀取引所의 七月中賣買高는 알에와가다 (以下單位百石)

	總高	最高
釜山	四、九三〇	五〇四
大邱	一四、一五九	一、〇九二
木浦	四、〇五二	四七二
群山	一六、二三二	一、五七四
仁川	三六、八〇六	二、四三〇
鎭南浦	―	―

	最低	平均
釜山	三二	一八二
大邱	二、〇四〇	五二四
木浦	一三〇	一五〇
群山	一六二	六〇二
仁川	四七〇	一、三六四
鎭南浦	―	―

經濟界消息

◇滿洲電信電話會社社債發行=【電通東京電話】今回滿洲電信電話會社에서는 第三回社債三百五十萬圓을 發行키로되엇는데 條件은 알에와가튼條件으로써 ▲發行總額=三百五十萬圓▲券種類=百圓、五百圓、一千圓、一萬圓▲發行價格=百圓▲利率=年四分三厘▲償還方法=二個年据置後八個年에隨時償還▲利拂期日=三月二十日、九月二十日▲元利金支拂場所=朝鮮銀行本店及大連、新京、東京支店▲拂込期日=昭和十年九月二十日▲引受銀行=朝鮮銀行▲下受=山一、共同、野村各證券會社

◇大藏省擔當記者團來=大藏省擔當의 各社記者로서 組織한 財政研究會 滿鮮視察團一行九名은 四日 午後三時廿分 入京하야 朝鮮호텔에 一泊하고 同夜 明月舘本店에서 朝鮮銀行의 招宴에 出席하엿다 五日 午後三十分發 列車로 北行할豫定이라고

◇全朝鮮工業者大會=朝鮮工業協會主催로 釜山府議後援의 第二回全鮮工業者大會는 十月廿八、九의兩日 釜山公會堂에서 열기로 決定하엿는데 이것은 十月廿六日 京城에서 열릴 東洋工業會議의 終了를 기다려 열게되야 協議中이든바 一日의 釜山府議役員會에서 內定된것이라고

商況(二日)
株式 動意殆無 保合

前場不變 今前場도 市勢는 依然積極味가업고 閑散傍觀으로 不變이엇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十錢低인 百三十五圓九十錢、日產十錢低인 百六十八圓七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六十圓五十錢 朝新二十五圓三十錢 日魯五十五圓二十錢 東京電燈四十五圓八十錢 日鑛新三十五圓八十錢 三菱鑛新五十三圓六十錢 滿鐵新二十六圓三十錢 各一本이잇섯다

後場保合 後場은 東新百三十五圓七錢 日產六十八圓五十錢에 各十錢低 寄後細刻保合閑散裡大引이고 日魯新二十六圓五十錢 帝人新六十八圓五十錢 日石百三十八圓 日石新十二圓六十錢이엇섯다

局面打開至難 文字그대로閑散

民賣人氣旺盛이나 深入은 避하며 低價는 買하나 高하면 傍觀하니 말로만 强弱觀을 떠들것 무슨所用이리오 若衆은 新甫도 시원한맛이업고 今前場은 文字그대로의 暑中休暇

缺陷잇는市勢

대로의 閑散傍觀、膠着不動이엇다 마음으로는 은근히 秋高를 期하나 强氣로서는 너무痛傷이엇고 金缺病에 呻吟中이니 殘株가 나올수업는것이 事實로서 이래저래 新局面打開는 至難되는모양이엇다 紡績、絹은 操短擴張으로 下値가 局限된듯하고 米國財界好轉을 背景으로 生絲高에 依하야 夏秋繭高와 米價高로 日本內地農村에 生氣가잇스며 世界的建艦競爭으로 보아 當然軍事費膨脹은 免하며 低金利繼續으로 [illegible]

市場六感

株 百度를넘은 酷暑에는 파김치가 되어버린지 市勢는 搖之不動▲市勢를 움지이는者 사람인데 사람이 더위에 절절매는 이판에 市勢인들 시원한맛이 잇슬손가▲어더위는 生涼되고 市勢도 淸新한 氣分이나거나▲今前場은 一二部를合하야 매가붓기를 十四個▲價格은 東新三十錢、日產大新、朝新等은 無幅也라▲자-이만하면 市場은 開店休商이

米 新甫十限이 發賣되는 昨日의 市勢는 바로 大暴落을 演出한듯하엿스나 結局大鞘뿐으로 低落의度는 不過幾十丁▲當中兩限도 軟弱하지안는바는 아니나 其實은 二十餘丁低落에 止할뿐▲金太後를 本營으로한 某一流側은 中限의 大買物을 抱擁하고 先限에는 賣方針을 樹立하는 光景▲此는 中限買의 保證的賣物? 그結果가 注目處▲阪地高橋一派는 八限의 買玉이 十萬石이나된다고 此를 抗拒할當者ー果然그누구?▲賣方의 持米는 去月當限戰에 旣히 出盡하엿스니 八限의 渡米蒐集은 果然難問▲아즉은 賣方의 懷中如何를 알지못하는만큼 此邊에서 經返하는 狀態이나 그러나 幾日만더經過하면 品質의소리가 再燃되어 不意의 爆發을 示할지 누가 알냐?▲土用에 入한以來의 日本內地天候는 太平洋上의 高氣壓으로 無事經過되는 모양이나 갈사록 天災가 重疊되는 今日에 賣方針은 警戒自重할일이 아닌가?

今日財界(二日)

◆米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正租(仁川)改良 / 一斤 假在來 (單位錢)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 銀 [illegible]

◆株 朝新 / 東新 / 日產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 大阪棉花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고무現 [illegible]

期米 軟調裡에 細刻

前場續落 昨後場 阪地二十九圓四十五錢止와 共히 二十七圓六十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四十七錢인 二丁反高를 排하고 二十七圓六十一錢인 一丁反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三節五十三錢으로 四十九錢까지 小弛하엿다가 五十錢에 止場함을伴하야 二節六十六錢으로 金太의 連節賣物이 續出하야 結局五十一錢의 最低로 場을 止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 二十七圓五十一錢에 同價寄後 三節五十七錢에 小高이엇스나 五節五十一錢에 更弛이고 別欄가티 止場하다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 氣勢不動이오 市場閑散、市勢保合이엇다

高氣壓의城壁 颱風도不可侵

日本內地에서 가장 天候의 如何를 注目하는 土用은 客月二十一日부터 來八日까지인데 土用에入한 以來의 天候는 低氣壓을 防禦하는 高氣壓이 太平洋上으로부터 漸次擴張되어 日本東方海上에서 城壁을 일우고잇슴으로 過般小笠原附近에 發生한 七百二十三耗의 有勢한 颱風도 日本內地로 侵入하지못하고 中國으로 上陸하고말앗스며 今回沖繩島附近에서 發生한 颱風도 그詳細를 아즉알수업스나 그러나 高氣壓이 依然消滅되지안코 黃海方面으로 擴張되어잇슴으로 또한 侵入키不能할모양이다 土用의 最終日인 來八日까지의 天候良好를 可期할수잇스나 그러나 土用을 지난後에도 猛烈한 颱風이 襲擊하는때는 稻作에 非常한 影響이 잇슬뿐아니라 開花期가 不遠한 此際에잇서서 土用無事만으로 安心할수업다고 云云 果然風?雨?

朝取期米取組內容 · 堂島前場情報 · 各地正米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金融(二日) · 米穀(二日) · 商品(二日) · 株式(二日) · 期米(二日) 相場表

[illegible]

仁川期米 劉康益夏商店 仁川 海岸町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 黃金町